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전공
이권민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형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전공
이 권 민

이권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차 동 하

부위원장 이 혜진

위 원

김형숙



(인)

(인)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이 그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관찰 표현 교육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각의 틀을 넓혀주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관찰 표현 교육은 그 본질적 가치가 아닌 단순히 대상을 보고 똑같이 그리기를 반복하는 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삶과 연결된 실질적 교육이 아닌 삶과 유리된 단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몸을 이용한 ‘움직임 교육’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의 목적은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의 가치를 검토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움직임 교육의 활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그 정당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I장에서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관찰의 중요성과 미술교과에서 관찰 교육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움직임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입증하였다.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미술 교과 관찰 표현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이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관찰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그 해결방안으로 움직임 교육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먼저 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움직임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움직임 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미술교과 관찰 표현교육에 움직임 교육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여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III장에서는 프로그램 지도안 개발에 앞서 프로그램 실행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 사전 조사는 프로그램 실행 전 같은 주제로 진행된 미술교과 관찰 표현 수업의 실제와 그 결과물, 사전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IV장에서는 구안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프로그램의 실재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수업 전 후 결과물 및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V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예술교육이 지향해야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본 연구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논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을 넓혀주는 관찰 표현 교육의 본래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도구로써 움직임 교육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이 단순히 대상을 똑같이 옮겨 그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임을 밝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미술, 관찰 표현, 움직임 교육, 미술교육 프로그램

학 번 : 2016 - 21646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5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4. 연구의 중요성	7
II. 이론적 배경	9
1.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9
1) 미술교과에서 관찰의 의미	9
2) 미술교과에서 표현의 의미	12
3)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	13
4)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14
가.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전개	14
나. 교과서 분석	16
2. 움직임 교육	18
1) 움직임 교육의 개념	18
2) 움직임 교육의 교육적 의의	20
3)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	22
III.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개발	23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24
1) 사전 관찰 표현 실제 및 결과물 분석	24
2) 사전 설문지 분석	27

2. 프로그램 목표 및 개발방향	38
3.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41
4. 지도상의 유의점	43
5. 프로그램 지도안	44
1) 1차시: 정물 관찰 표현	44
2) 2차시: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46
3) 3차시: 손 (감정) 관찰 표현	48
4) 4차시: 나무 관찰 표현	49
5) 5차시: 눈동자 관찰 표현	51

IV.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실행

53

1.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실제

53

1) 1차시: 정물 관찰 표현	53
2) 2차시: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55
3) 3차시: 손 (감정) 관찰 표현	56
4) 4차시: 나무 관찰 표현	57
5) 5차시: 눈동자 관찰 표현	59

2.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결과 분석

61

1) 1차시: 정물 관찰 표현	61
가. 활동 감상지 분석	61
나. 수업 전 후 결과물 분석	63
2) 2차시: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65
가. 활동 감상지 분석	65
나. 수업 전후 결과물 분석	67

3) 3차시: 손 (감정) 관찰 표현	70
가. 활동 감상지 분석	70
나. 수업 전 후 결과물 분석	72
4) 4차시: 나무 관찰 표현	76
1). 활동 감상지 분석	76
2). 수업 전 후 결과물 분석	78
5) 5차시: 눈동자 관찰 표현	82
1). 활동 감상지 분석	82
2). 수업 전 후 결과물 분석	84
6) 사후 설문지 분석	86
 V. 결론	97
 참고문헌	103
부록	107
Abstract	111

표 목 차

[표 1] 관찰 표현 학습 형태 주제별 정리	17
[표 2] 사전 설문지 문항	27
[표 3]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28
[표 4] 선행 관찰 표현 수업 1	30
[표 5] 선행 관찰 표현 수업 2	30
[표 6] 선행 관찰 표현 수업 3	31
[표 7] 흥미 1	32
[표 8] 흥미 2	32
[표 9] 자신감 1	34
[표 10] 자신감 2	35
[표 11] 자신감 3	35
[표 12] 만족도 1	36
[표 13] 만족도 2	36
[표 14] 만족도 3	37
[표 15] 교과 역량	39
[표 16] 프로그램 학습 형태	41
[표 17] 프로그램 지도안 1	44
[표 18] 프로그램 지도안 2	46
[표 19] 프로그램 지도안 3	48
[표 20] 프로그램 지도안 4	49
[표 21] 프로그램 지도안 5	51
[표 22] 정물 관찰 표현 1	61
[표 23] 정물 관찰 표현 3	62
[표 24]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1	66
[표 25]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2	66

[표 26] 손 (감정) 관찰 표현 1	71
[표 27] 손 (감정) 관찰 표현 2	71
[표 28] 나무 관찰 표현 1	76
[표 29] 나무 관찰 표현 2	78
[표 30] 눈동자 관찰 표현1	83
[표 31] 눈동자 관찰 표현2	83
[표 32] 사후 설문지	87
[표 33] 사후 설문지 - 흥미도 1	87
[표 34] 사후 설문지 - 흥미도 2	87
[표 35] 사후 설문지 - 자신감 1	89
[표 36] 사후 설문지 - 자신감 2	89
[표 37] 사후 설문지 - 만족도 1	90
[표 38] 사후 설문지 - 만족도 2	90
[표 39] 사후 설문지 - 관찰 표현 능력 향상1	92
[표 40] 사후 설문지 - 관찰 표현 능력 향상2	92
[표 41] 사후 설문지 -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1	94
[표 42] 사후 설문지 -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2	94

그 립 목 차

[그림 1] 수업 전 관찰 표현 그림 (1)	25
[그림 2] 수업 전 관찰 표현 그림 (2)	26
[그림 3]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실제	55
[그림 4] 손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실제	56
[그림 5] 손 (감정) 관찰 표현 수업 실제	57
[그림 6]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실제	58
[그림 7]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실제	60
[그림 8]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1	63
[그림 9]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2	64
[그림 10]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3	64
[그림 11]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4	65
[그림 12]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1	68
[그림 13]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2	68
[그림 14]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3	69
[그림 15]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4	69
[그림 16]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 4	70
[그림 17]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1	72
[그림 18]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2	73
[그림 19]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3	73
[그림 20]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4	74
[그림 21]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5	74
[그림 22]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6	75
[그림 23] 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7	75
[그림 24] 나무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1	79

[그림 25]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2	79
[그림 26]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3	80
[그림 27]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4	80
[그림 28]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5	81
[그림 29]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6	81
[그림 30]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7	82
[그림 31]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1	84
[그림 32]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2	85
[그림 33]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3	85
[그림 34]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 후 그림4	8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하는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지식의 깊이는 피상적인 경향이 커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교사 주도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주지 주의적 교육관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게 되었다. 학습에 있어서 단순히 지식의 습득양이나 안정성이 확보된 지식의 이해는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실제적인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생성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졌고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윤정은, 2012). 하지만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을 통해 본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현상을 주의 깊게 보는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지식은 관찰로부터 시작 되며 특히 예술과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세밀한 관찰 능력이 곧 창조적 상상력의 발취로 이어진다(박남이, 2009).

양민영은 관찰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일련의 감각, 지각, 인지의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경험적 활동이다. 특히 미술에서의 관찰 교육은 주체적 인식에 의하여 표현 대상의 실재를 스스로 발견해가는 과정이다(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그러나 박휘락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교과 관찰 교육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부족하였다. ‘관찰화’란 용어 자체도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관찰화 교육은 그 의미와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미술교과 관찰교육을 함에 있어서 인식의 과정 자체가 아닌 사실적인 표현 중심의 가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박휘락, 1998). 이러한 결과 중심의

피상적인 관찰 표현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미술교과 내로 한정시키고 그 결과 교육은 실제적인 맥락과 유리되게 된다. 현실과 유리되어 단순히 대상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관찰 표현 교육은 교육의 효과가 삶으로 연장될 수 없다. 또한 삶에서의 실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그동안 이러한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KCI 등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총 21건이 있었다. (고은영, 2010; 민복식, 2004; 김지은, 2009; 최미영, 2010 ; 백정민, 2007; 김은미, 2002; 이연주, 2007; 이선화, 2009; 김도연, 2016; 박미진, 2014; 이세비, 2017; 김철성, 2007; 백민주, 2010; 박남이, 2009; 강주연, 2009; 성기호, 2009; 정세명, 2013; 신정아, 2016; 김돌선, 2008; 허성숙, 2008; 이미라;2001). 대표적으로 이연주(2007)와 고은영(2010)은 각각 로웬펠드와 허버트 리드의 표현유형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백정민(2007)은 주관적인 감정이입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눈 단계적 관찰 방법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도연(2016)은 그림일기쓰기를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박미진(2014)은 STEAM속 ART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미술중심의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밖에 민복식(2004), 이선화(2009), 김은미(2002)은 드로잉을 활용한 관찰 표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도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 21건의 연구 논문 중 19건이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머지 2건의 연구 또한 대상의 범위를 중등학생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연주(2007)의 논문은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분석, 수업 구안 등을 통해 관찰 표현 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 적용하지 않아 그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선화(2009)의 논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윤곽드로잉을 시각

중심의 외형적 표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생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 표현교육은 교육의 깊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내용의 관찰 교육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동들보다 이전의 관찰학습의 영향으로 관습적 관찰 표현의 경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아동과 초등학생과는 다른 연구의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은영(2010)과 백정민(2007)은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시각외의 다양한 감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지도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표현유형과 관찰단계 중 일부분으로 제시되어 관찰표현 교육에 있어서 ‘몸’의 활용에 따른 교육적 의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고 학습활동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몸’을 이용한 관찰 표현 지도안 개발과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찰 표현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재고가 부족한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몸’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움직임 교육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움직임 교육은 그 자체로 실제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교육으로써 그 자체로 실제적인 삶과 맞닿아있다. 이는 삶과 유리된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해결방안으로써 가능성이 있다.

미술교육과 ‘몸’의 관련성과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KCI 등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총 15건이 있었다. (서은희, 2011; 윤정은, 2012; 박은앵, 2016; 박은실, 2013; 송현숙, 2003; 배다남, 2006; 이유진, 2016; 위규리, 2012; 송민희, 2017; 김기숙, 2012; 노미, 2014; 김은경, 2006; 김성란, 2011, 민경하, 2008; 김지선, 2004;)

위 논문들을 통해 미술교육 분야에서 ‘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관찰 표현 교육에 한정하여 몸을 활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관찰 표현 교육에 움직임 교육의 필요성과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 교육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관찰 표현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찰 표현 교육의 초점은 관찰 표현의 결과가 아닌 본질적 과정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평가를 위한 사실적 재현 등의 외부적 틀이 아닌 어떻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새로운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삶을 풍부하게 가꿀 수 있는지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결과 중심의 관찰 표현교육은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지면 관찰 표현교육은 효율적인 표현을 위한 기술훈련 중심의 암기교육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관찰 표현교육의 결과물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낸다. 관찰 표현교육이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을 알려주어 삶을 풍부하게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 표현’의 과정자체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찰 표현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움직임 교육의 활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질적인 관찰 표현을 위한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에 한정된 보고그리기가 주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찰 표현 교육은 관념적인 관찰교육으로 흘러가기 쉽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고 그린다는 것에 익숙해져 대상을 새롭게 관찰하여 그리기 보다는 아는 데로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움직임 교육은 대상을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도안을 개발, 실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미술 교과에서 관찰 표현 교육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움직임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둘째,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발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고안한 움직임교육을 활용한 관찰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움직임 교육을 활용하여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미술교과에서 관찰 표현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미술교과에서 관찰과 표현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술교과에서의 관찰은 단순히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을 넘어서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또한 미술교과에서 다양한 표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한 표현 유형을 고려한 관찰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였다. 그 다음 관찰 표현교육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생화 교육’이란 용어로 시작된 관찰 표현

교육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2절에서는 관찰 표현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움직임 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움직임 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움직임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움직임 교육 자체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여 미술교과 관찰 표현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움직임 교육을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III장에서는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행,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절에서는 실제 실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찰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발방향, 대상,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도출한 뒤 구체적인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IV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안한 관찰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한 후 1절에서는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프로그램의 실재를 서술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수업 전후 결과물과 사후 설문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찰한다.

V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한 뒤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관하여 제안한다.

움직임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의 중요성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찰 표현과 움직임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의 자료로는 학위논문과 단행본을 이용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앞서 프로그램 실험 대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움직임 교육 없이 미술 관찰 표현하도록 하여 수업 전 평상시 학생들의 관찰 표현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 수업 전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선행

관찰 표현 수업 경험, 흥미, 자신감,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정립한 관찰 표현 교육의 의미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지도안을 작성한 후에는 연기 및 무용 전공자들에게 프로그램 지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넷째, 개발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실험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은 울곡고등학교 학생 1학년 14명(남2 여12), 2학년 12명(남1 여11), 3학년 12명(여12) 총 38명이다.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었고 성별 구성은 여학생들의 비율이 많았다. 또한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술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편이었다. 수업은 방학 중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총 5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1, 2, 3학년 각 학년 별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섯째,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 전 후 그림 및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수업의 관찰은 수업을 진행하는 연구자의 직접 관찰, 녹음, 카메라 촬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업 전 후 그림 분석을 위해 수업 전 동일 주제 결과물과 수업 후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는 결과물의 전 후차이가 확실하게 보여 지는 대표 작품을 추려서 실었다. 그리고 작품분석 외에 설문지 분석을 위해 수업 전 후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차시 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낀 점을 정리하는 활동 감상지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중요성

일반적인 관찰 표현 수업은 단순히 결과물의 표현이 얼마나 효과적인고 사실적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관찰 표현 수업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고 흥미를 잃는다. Klaus Mollenhauer(1983)는 이러한 마치 상품을 만들어 내듯 희망하는 결과를 산출하려는 제작적 관점의 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생들을 단순히 자유롭게 방임한다면 이는 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없다. 그보다 학생들이 관찰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관찰 표현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고찰 및 구체적인 교육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갖는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관찰 표현의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전개와 교과서 검토를 통해 관찰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관찰 표현교육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움직임 교육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구안한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인 관찰 표현 교육은 사실적 재현 중심의 단순한 보고 그리기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미술교과에서 관찰 표현의 의미와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한다. 이는 관찰 표현 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1) 미술교과에서 관찰의 의미

일반적으로 관찰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과학적, 교육학적, 철학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관찰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두산백과, 2017). 그 중 미술교과에서 관찰은 고정관념 없이 대상을 지각하고 관찰자의 환경 및 생각 등 주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우리의 마음에 비친 대상인 ‘이미지’를 본다(임정기 외, 2006). 대표적 나비파중 하나인 모리스 드니는 보나르의 그림에 대해 “보나르는 노란 호박을 금빛 마차로 바꾸는 요정과 같은 재주를 갖고 있다. 그는 황량한 일상을 찬란하게 만든다. 그의 붓이 닿으면 화장실도 천 일야화의 한 배경으로 바뀐다.” 라고 표현했다. 화가는 풍경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 인상 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터 벤야민(Waler Benjamin)은 본다는 것을 단순히 대상에 대한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작동하는 고유한 정신활동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아우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발터벤야민은 그의 저서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서 아우라

를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것의 일회적인 나타남”이라고 정의하였다(Waler Benjamin, 2006, p33). 즉 아우라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시공간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분위기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단순히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현상이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를 보는 것이다. 그 분위기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서로 교감할 때, 그 뒤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권용선, 2014). 이처럼 모든 감각 경험은 이러한 ‘아우라’를 조성한다. 즉 우리의 눈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는 역동적인 기관인 것이다(김남시, 2013).

이처럼 미술에서 관찰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은 찾는 과정이 아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과정이다. 이는 현상학의 개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상학에서는 대상이 우리 의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대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우리 삶과 세계의 구체적이고 날 것 그대로인 체험에 주목할 것을 이야기한다(서동욱 외, 2014). 즉 대상은 존재 양식이나 주어진 답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체험에 의한 주관적인 것이다.

이는 전통 동양미술의 관찰에서도 볼 수 있다. 동양미술에서 관찰은 하나의 소실점을 토대로한 투시 원근법이 아니었다. 사물을 보는 개인의 시점을 토대로 삼원법, 이동시점이 사용되었다. 또한 관찰을 할 때 단순히 대상의 객관적인 형태보다도 개인이 생각하고 발견한 감정, 원리 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박우찬, 박종용, 2016).

따라서 미술교과에서 관찰이란 단순히 시 감각을 통한 감각의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대상 및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만큼 기존에 알고 있는 관념을 바탕으로 습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Betty Edwards(2015)는 그림을 통해 인지 과정을 배움으로 인식의 과정을 바꾸고 차이점을 인정하며 대상을 보다 더 완전하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사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관념적 틀을 벗어나 관찰자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포함한 몸의 모든 감각을 열어야한다. Kimon Nicolaides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능한 모든 감각을 이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Kimon Nicolaides, 1941, Betty Edwards 재인용, 2015) 또한 김성호는 관찰은 오로지 ‘시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모두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김성호, 2015). 오감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관찰은 관념에서 벗어나 신체라는 개별적 감각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남창훈에 의하면 오감을 통한 관찰에서 더 나아가 상상력의 폭을 무한정으로 넓힘으로써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눈, 코,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상의 정보들을 상상력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남창훈, 2010).

정리하자면 미술교과에서 관찰이란 자신만의 관점으로 주체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에 의해 대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계하며 주체적으로 대상을 봐야한다. 그리고 시각뿐 아니라 온 몸의 감각을 활용하여 관찰함으로써 주체적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해야 한다.

2) 미술교과에서 표현의 의미

일반적으로 표현이란 어떤 내용을 외적인 형식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술에서는 자연이나 현실 등의 외적 대상세계를 묘사하는 모방과 감정, 정서 등의 심적 상태를 겉으로 나타내는 표출 그리고 추상적 보편적 관념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사건연구사 편집부, 1998). 미술교육에서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교육은 이 두 가지 표현을 조화롭게 다루어야한다. 개관적인 표현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방해한다. 하지만 아이스너(E. W. eisner)에 의하면 지나치게 주관적인 표현만을 강조하는 것 또한 지성을 발달시키는 미술의 기본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E. W. eisner, 2001).

이은적은 객관적 표현과 주관적 표현으로 나뉘는 미술교육의 두 양상은 미술교육의 동향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술에서 무엇을 가르쳐야하는 가의 논의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인 사물을 정확히 재현해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는 미술전문가 양성 및 산업화로 인한 직업교육과 연계되어 미술교육의 주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기술이 아닌 개인의 감정, 창의성에 대한 교육의 흐름 또한 전개되었다. 이러한 두 이론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는 미술교육의 큰 두 사고체계이다(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나아가 학자들에 의해 표현 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로웬펠드는 표현유형에 시각형과 촉각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시각형의 주요 매개체는 눈이다. 그들은 대부분 사물의 겉모습으로부터 대상에 접근하여 사물의 전체를 보고 나서 전체적 인상에 따라 세부와 부분들을 분석한다. 반면 촉각형은 근육운동을 통한 지각적 경험과 촉각적 느낌,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 등으로 표현하며 대상과 공간의 중요성의 정도는 어린이의 정서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그들은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표현한다. 로웬펠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의 일직선상에 분포

한다고 보았다(Lowenfeld, 2002). 또한 하버트리드는 미술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 유형을 분류하여 표현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는 표현 유형을 유기형, 촉각형, 구조형, 열거형, 상상형, 장식형, 율동형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미술교과에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사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경험과 표현을 격려해야하며 어느 한 표현 유형에 치우친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표현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해야한다.

3)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

미술교과에서 관찰 표현 교육은 단순히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고 이를 똑같이 재현해 내는 수동적인 교육의 개념이 아니다. 관찰 표현교육은 오감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미묘한 것을 지각하고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대상의 본질을 지각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를 통해 관찰자는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또한 관찰 표현 교육은 대상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김성호는 관찰을 위해서는 관찰대상에 가까이 다가서고 대상과 눈높이와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 몰입을 통해 대상에 깊숙이 들어가 하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김성호, 2015) 즉 관찰 표현 교육이란 적극적으로 대상에 감정이입을 통해 그 대상 자체가 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토대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관찰 표현 교육이란 미술교과에 한정된 단순히 대상을 잘 그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기던 대상들에 대한 지각의 틀을 넓히고 나아가 공감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즉 관찰 표현 교육은 교과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과편화되고 단절된 교육이 아닌 삶과 연결된 실질적인 교육인 것이다.

4) 미술 교과 관찰 표현 교육

가.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전개

미술교과에서 ‘관찰 교육’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3년 제3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이는 ‘사생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왜 ‘사생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졌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관찰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박휘락의 ‘한국미술교육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박휘락, 1988).

사건적으로 사생화란 실재하는 사물을 보고 모양을 간추려서 그린 그림을 가리킨다. 한국은 개화기에 사생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사생화’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1909년에 제정된 사범학교령 시행 규칙과 고등학교 령 시행 규칙 부터이다. 국내 사생화 교육의 흐름은 크게 수기훈련주의 사생화교육 시기와 자유화운동과 사생화교육 시기, 그리고 이를 토대로 등장한 관찰화 교육 시기로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10년대는 임화중심의 사생화교육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 시기는 미술교육의 도입기와 일제 식민주의 교육이 강행되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해당된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 도화과 교수요지에 나타난 그리는 방법은 크게 ‘임화’ ‘사생화’ ‘고안화’¹⁾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임화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사생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사생화교육은 ‘임화식의 사생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교본상의 임본을 모사하면서 단순히 실물을 옆에 두고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된 교육이었다.

1) 임화 : 임본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그 형상대로 모사하는 것

사생화 : 실물의 위치 형상 색채 농담 등을 정확히 관찰하여 그리는 것

고안화 : 체득하고 있는 도화상의 지식과 기능을 응용하여 자기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그림을 구성하는 것

이후 1920년대의 사생화교육은 자유화운동에 영향을 받은 시기였다. 자유화교육운동은 1919년 일본의 야마모토 가나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였던 국내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자유화란 이전에 일본에 얽매인 모사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억압된 표현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였고 교실 안에서의 일본이 아닌 온갖 조형요소를 가진 자연을 직접보고 그리기를 중시하였다. 하지만 자유화 교육은 창조적인 미술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본주의 교육에서 사생주의교육으로 그 흐름이 변화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유화교육은 지도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자유화’가 아닌 ‘방종화’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생화교육에 대한 변혁으로 ‘관찰화’라는 용어가 대두되었으며 1973년 광복 후 제3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등장하였다. 자유화교육이 자연 대상에서 감각을 무한히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관찰화 교육은 감각해방을 전제로 하지만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또한 관찰 대상의 제재에 있어서 자유화 교육이 대상을 자연에 한정했다면 관찰화 교육은 나아가 자연을 포함한 우리 생활의 전반 즉, 삶 자체를 관찰의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관찰교육의 역사는 크게 형식만을 중시하였던 입화중심의 사생화교육 시기를 거쳐 자유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생화교육 시기가 등장하였으나 이 또한 형식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었고, 내용을 추구하려 하였으나 단순히 학생들을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시한 관찰화교육시기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관찰교육’이란 용어 또한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관찰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까지 과정에 대한 숙고의 과정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모사 중심의 교육과 단순한 기능중심의 사생화교육, 관찰화 교육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정세명, 2013). 관찰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나. 교과서 분석

이번 장에서는 고등학교 미술 창작 교과서 (교학사, 노영자, 2017)를 살펴봄으로써 관찰 표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술 창작 교과서의 중단원 ‘평면에서의 표현’의 소단원 ‘평면에 펼치는 조형의 아름다운’이란 소단원에서 관찰 표현을 다루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단원 단원설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물이나 풍경, 인물 등에 관심을 갖고 관찰할 때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별로 정물, 풍경, 인물로 분류하여 관찰 표현학습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제별 구체적 학습형태를 살펴보면 사실적 표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원 설정의 이유에서 제시한 ‘삶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관찰 표현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은 교과서 지도서에 제시된 주제별 학습형태를 정리한 표이다.

<표1> 관찰 표현 학습 형태 및 평가 요소 주제별 정리

	수업 형태	평가 요소
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다양한 정물을 중앙에 배치하고 대상을 선정 -정물의 특징을 살려 구도, 전체와 부분과의 조화 등에 유의하여 스케치 -의도에 따라 소재, 수량, 위치, 방향 등 자유롭게 구성 -적절한 재료 선정 및 다양한 기법표현 -명암, 양감, 질감, 공간감 등에 유의하여 채색 -세부적 표현과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여 완성 	화면 구성, 형태 특징, 재료의 특성 표현
풍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의 공간감, 거리감, 짜임새 있는 구성을 스케치 -빛과 계절의 변화 등 지역적 특성 고려 -주제에 적합한 재료 탐색하여 채색 -근경, 중경, 원경을 고려한 채색 -재료의 특징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화면 구성, 원근감, 계절감 표현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화의 표현 요소 이해하기 (비례, 균형, 동세) -인물의 특징을 비례, 균형, 동세, 표정 등을 살려 스케치 (외형 뿐 아니라 내면까지 표현) -주제에 적합한 재료 탐색 및 계획 (자신의 느낌을 살려 창의적 표현, 재료와 색채의 활용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 활용,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생각하여 표현) 	인물 형태, 표정, 개성 등 외형적 부분과 내면적 부분

표를 통해 관찰 표현의 본질적인 과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실적 표현을 위한 결과중심으로 학습형태가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 관찰 표현에서 ‘외형 뿐 아니라 내면까지 표현’, ‘자신의 느낌을 살려 창의적 표현’ 등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추상적인 학습 형태는 학생들

의 올바른 관찰 표현을 유도하지 못하며 단순히 대상을 가운데 두고 똑같이 보고 그리기로 진행되는 관습적, 반복적, 수동적 관찰 표현수업으로 전락되기 쉽다. 관찰 표현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찰 표현 학습형태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관찰 표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교육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수업형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움직임 교육

관찰 표현 교육은 지각을 틀을 넓히고 삶의 풍성하게 하는 실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관찰 표현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찰 표현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숙고 없이 사실적 표현 중심의 관습적이고 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그 해결방안으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움직임 교육의 정의를 정리하고 움직임 교육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검토하고 나아가 움직임 교육을 관찰 표현 교육에 활용하였을 때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움직임 교육을 통한 관찰 표현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움직임 교육의 개념

인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움직임이란 필수적인 개념이다. 움직임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생존의 수단이다. 움직임발달은 이미 태아 때부터 자궁에서 시작되며, 죽음과 함께 정지된다.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걷기, 달리기, 그림 그리기, 식사하기 등으로 이해된다. 또한 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으며, 혈액은 순환하고 폐는 숨을 쉬는 등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기쁨과 슬픔과 같은 감정의 내적 움직임도 움직임에 포함된다 (Zimmer, Renate, 2010).

움직임 교육에 대한 개념은 헝가리 출생의 독일학자 Laban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라반은 움직임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질적인 면에서 시간(Time), 무게(Weigh), 공간(Space), 흐름(Flow)의 요소로 구분하였고 양적인면에서 신체, 노력, 공간, 관계로 분류하였다. 라반의 움직임 교육의 중심주제는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단순히 신체 운동능력의 발달이 아닌 자아의식,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감상력 발달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이우용, 2000).

이미정(1991)은 움직임 교육이란, 움직임의 특정된 기술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주체적인 교육이다. 즉 움직임 교육은 단순히 신체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를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이미정, 1991). 김현주, 유시현, 전미현(2004)은 움직임 교육이란, 학생 스스로 움직임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움직임 분석능력을 고양하며 나아가 창의적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움직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무용교육을 포괄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 움직임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현주 외, 2004) Gerhardt(1973)는 움직임 교육이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사회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보다 복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창의적 사고와 상징적 표현의 능력, 심미적 감각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A. Gergardt, 1973, 레테나 짐머, 2010, 재인용).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움직임교육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움직임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움직임교육은 신체를 매개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 과제와 다양한 창의적 신체 놀이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신체활동 교육이다. 나아가 움직임 교육을 통해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소통능력, 심미적 감각, 창의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다.

2) 움직임 교육의 교육적 의의

이 장에서는 움직임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검토하고 관찰 표현 교육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적 성격의 지식교육이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학문적 성격의 지식교육은 주로 폭넓은 지식과 이해의 획득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과거 교사의 주도로 주지 주의적 교육관은 그 가치를 재고해야 보아야 한다. 21세기의 교육은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소경희, 2017). 윤정은은 이제 학습 경험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개인의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경험은 몸에 의거한 지각과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교육에서도 교과적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서 지각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윤정은, 2012) 움직임 교육은 ‘몸’을 통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체험을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각중심의 교육으로서 현대 교육의 흐름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삶과 연결된 실질적 교육을 추구하는 관찰 표현 교육의 실제적 가치와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움직임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미술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같이한다. 움직임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지예(2016)는 ‘창의움직임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 표현력 증가에 미치는 효과’에서 창의움직임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발달성 장애인들의 자기 표현력, 상호작용능력, 구어표현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경숙(2006)은 ‘동작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작활동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유아의 창의성과 창의성의 하위영역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에서 변화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지영, 김수현(2012)은 ‘홀리스틱 관점의 움직임 창작교육에 관한 실험연구’에서 홀리스틱 관점의 움직임 창작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결과 학생들의 문제해결의 판단력과 집중력, 표현력과 소통능력의 적극성, 움직임 스토리의 구성력, 조원 간의 단합 등 활발한 활동으로 개선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정화(2014)는 ‘청소년 대상의 움직임을 통한 창의 예술적 프로그램 연구’에서 움직임을 통한 예술 프로그램 실행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감, 표현에의 흥미를 느끼고 예술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창의성 개발과 표현의 자유로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게 표출하였다. 그리고 양보현(2007)은 ‘발레 동작을 적용한 움직임 창작교육이 유아의 다중지능향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레 동작을 적용한 움직임 창작교육을 실행한 결과 유아의 신체운동, 논리수학, 인간친화, 음악, 공간영역 등 유아의 다중지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재현(2015)은 ‘창의적 움직임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움직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자기효능감과 학교증력의 학교교사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움직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움직임 교육이 자기 표현력, 창의력, 상상력, 집중력, 자신감, 수업에 대한 흥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협동능력, 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어 주지 주의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 교육의 효과는 삶과 연결된 실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교과 관찰 표현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즉 움직임교육과 미술교육의 통합교육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3)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

이번 절에서는 움직임 교육을 관찰 표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를 정리 및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움직임 교육을 통하여 감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관찰표현이 가능하다. 이찬, 최영재(2008)에 의하면 신체를 통한 사물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감각과 지각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사물에서 풍부한 감성적 경험과 체험을 갖게 한다. 또한 움직임을 통한 표현을 통해 사물에서 연속성, 장면성, 유동성, 역동성, 불확정성의 특성들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움직임 교육을 통해 감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단순히 대상을 시각으로 보았을 때 관찰하지 못했던 대상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움직임교육은 일종의 놀이로써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관찰 표현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여 관찰 교육프로그램에 보다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듀이(John Dewey, 2001)는 모든 지식의 출발은 ‘흥미’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이정화(2014)는 ‘청소년 대상의 움직임을 통한 창의 예술적 프로그램 연구’에서 움직임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감이 높아지고 표현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움직임 교육을 통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자극은 감정이입과 같은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을 유도할 수 있다. 기존의 관찰학습은 주로 자리에 앉아서 보고 그리기 위주로 진행된다. 이렇듯 시각으로 제한되고 반복적이고 정적인 수업환경은 학생들에게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힘들고 이에 따라 감정이입과 같은 내적자극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움직임 교육은 신체를 매개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기 체험적 행위이다. 관점의 주체가 자신의 신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개인적 성격의 직접

체험을 통한 관찰은 시각적인 관찰로 인해 생긴 개념적 표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관찰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움직임を通한 관찰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 창작행위를 넘어 단체 활동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 소통,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찰 표현 교육이 삶으로 확장되고 전인교육이 가능 하다.

여섯째 움직임 교육을 통해 관념적인 관찰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대상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다. 프레드릭 프랑크(F.Franck)는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다부지게 보고 생생하게 느끼는 능력으로 몸과 마음 전체가 눈이 되어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것이며, 보이는 대상 안에서 자신을 느끼는 행위라고 하였다. 움직임 교육을 통해 단순히 눈을 통해 대상의 외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하나 되어 대상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F.Franck, 1984, 고은영 재인용, 2010)

III.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 교과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험 대상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발방향, 내용 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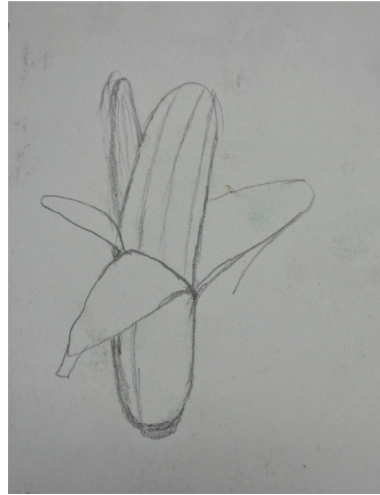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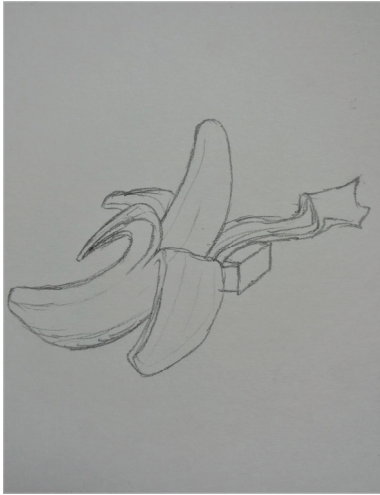
1) 프로그램 실행 전 미술 관찰 표현 실제 및 결과물 분석

수업 전 학생들에게 수업과 동일한 주제로 미술 관찰 표현을 하도록 했다. 관찰 표현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결과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관찰 표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의 수업 전 관찰 표현의 실제는 다음과 같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처럼 관찰 표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지 못하고 금세 지겨워했다. 또한 재료도 다양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한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소극적 경향을 보였으며 대상을 가까이에서 보거나 만지는 등 적극적인 관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감정이입을 통한 관찰 표현에 굉장히 낯설어 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관찰하기 보다는 주로 스케치북을 보고 그리는 시간이 많았다. 즉 기존에 알고 있던 관념에 의해 관찰 표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전 관찰 표현 결과물을 살펴보면 관찰보다는 단순히 외곽을 보고 따라 그린 경우가 많았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으로 관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수업 전 관찰 표현 그림 (1)



프레데릭 프랑크(Frank, Frederick)는 사물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깊이, 그리고 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관찰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사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깨달았다. 순수한 경이로움이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Frank, Frederick, 1973, Betty Edwards 재인용,) 이처럼 관찰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 그림은 질감 의 표현 등의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관찰‘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관찰에 의한 그리기 보다는 습관적인 보고 그리기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수업 전 관찰 표현 그림 (2)



위 그림은 각기 다른 정물을 포함한 일상적인 손동작을 관찰 표현한 것이다. 서로 다른 정물을 주제로 하지만 결과물이 모두 비슷하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 본질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습관적이고 관념적으로 관찰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전 설문지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수업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관찰 표현 경험과 인식 등을 사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앞서 관찰표현 교육에 대해 연구한 고은영(2010)과 백정민(2007)의 설문지를 참조하였다.

[표 2] 사전 설문지 문항

항목	번호	문항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1	관찰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선행 관찰 표현 수업	2-1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미술수업 중 관찰 표현 수업의 비중이 어땠나요?
	2-2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2-3	무엇을 배웠나요?
흥미도	3-1	관찰 표현 수업에 흥미를 느끼나요?
	3-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감	4-1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있나요?
	4-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족도	5-1	그동안 해왔던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하나요?
	5-2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표 3]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질문	답변	
관찰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을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것 - 대상을 보고 진짜 같이 그리는 것 - 대상을 보고 묘사하는 것 -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림 - 보는 것 - 내가 본대로 그리는 것 - 그냥 보고 그리기를 했다. - 보고 그리는 것? 정확히 관찰 표현이 뭔지 모르겠다. - 대상의 이미지를 관찰해서 묘사하는 법을 익힌다. - 물체의 형과 질감 등을 고려하여 똑같이 묘사하는 것 - 정물을 보고 정물의 겉모습을 따라 정확히 그리는 것 - 사물의 모양, 느낌, 질감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내는 것 - 묘사하는 것 - 관찰하여 특징을 잡아내고 원하는 질감, 특징을 표현해내는 것 	대 상 을 보고 겉모습을 똑같이 그리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에 답이 있는 것 	관찰 표현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 기존의 틀이나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본다. 	그 밖의 응답들
--	--	-------------

‘관찰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상을 보고 겉모습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관찰 표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상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사물에 답이 있는 것’, ‘기존의 틀이나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등 관찰 표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다.

관찰 표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학생들이 관찰이란 단순히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고 똑같이 옮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표현은 관찰 표현의 주체가 대상에 있고 관찰자는 그저 대상을 옮기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휘락에 의하면 관찰 표현 교육은 관찰 표현을 하는 주체가 주인이 되어야하며 그 대상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관찰 표현이란 관찰자가 주체가 되어 사물을 보고 관찰자가 자기 의도와 감정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박휘락, 1988)

관찰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칫 관찰자의 관념에 의해리게 될 오해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 관념은 기존의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시각매체 등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관찰자가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관찰자와 대상과의 질적인 순수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나. 선행 관찰 표현 수업

[표4] 선행 관찰 표현 수업 1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미술수업 중 관찰 표현 수업의 비중이 어땠나요?	반응	0%	5 ~ 30%	30 ~ 50%	50 ~ 80%	80 ~ 100%
인원수 (38명)		4	9	13	8	4
비율 (%)		11	24	34	21	11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미술수업 중 관찰 표현 수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항목 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거의 관찰 표현 수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이 11%였다. 또한 미술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에 관찰 표현 수업을 경험한 학생이 11%였다.

[표5] 선행 관찰 표현 수업 2

질문	답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물 관찰 후 그리기 - 대상을 주면 그걸 보고 그렸다. - 대상을 보고 그림 - 정물을 가운데에 두고 학생들을 근처에 두어서 관찰했다. - 정물을 눈으로 관찰해서 그렸다. - 대상 보고 그리기 - 모델을 앞에 두고 똑같이 표현하기 - 보고 그린다. - 정물을 학생들 중앙 배치해 놓은 후 이젤에 앉아서 작품을 그렸다. </div> <div> <p>관찰 대상이 주어지면 둘러앉아 보고 그림</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주면 알아서 보고 그린다. - 정물을 가운데에 놓거나 다른 사람이 그린 자료를 보면서 그렸다. - 잘 그린 작품을 보고 베껴 그렸다. 	
--	--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보고 그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관찰 표현 수업이 대부분 대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그리는 학습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잘 그린 그림을 보고 모사하였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는데 전통적인 모사위주의 수업이 상당부분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선행 관찰 표현 수업 3

질문	답변	
무엇을 배웠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 대상을 진짜처럼 표현하는 것 - 정물의 질감과 형태를 묘사하는 방법 - 사물을 닮게 그리는 것을 배웠다. - 명암, 덩어리 잡는 법을 배웠다. 	사실적 재현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정물을 주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렸다. - 솔직히 제대로 한 관찰수업이 - 기억나지 않습니다. - 기억이 안남 	명확한 지도가 없음

‘무엇을 배웠나요?’ 라는 질문에 사실적으로 대상을 재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관찰 표현 수업이 대상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해 내는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알아서 그렸다거나 배운 것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

변이 상당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 관찰 표현 수업이 관찰과 표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막연히 단순히 대상을 주고 알아서 그리는 방임적인 모습의 학습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흥미

[표7] 흥미 1

관찰 표현 수업에 흥미를 느끼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수 (인원수 38명)	0	11	15	9	3
비율(%)	0	29	39	24	8

이전에 경험한 관찰 표현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 보기위한 문항이다. ‘매우 그렇다’는 0%, ‘그렇다’가 29%, ‘보통이다’가 39%, ‘아니다’가 24%, ‘매우 아니다’가 8%로 관찰 표현에 별다른 감정이 없거나 관찰 표현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상당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흥미 2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물을 보고 그리는 것이 재미있었으나 표현이 잘 안되면 금방 흥미가 떨어져서 쉽게 그만두었다. - 사실적인 묘사가 안 되는 점이 싫었고 그렇다. - 뜻대로 표현 못해서 재미없었다. - 미완속해 보여서 아쉬웠다. 	사실적인 표현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워서 싫음. -명암이랑 덩어리 내는 걸 못한다. -관찰을 했지만 따라주지 않는 손이 원망스러웠다. -묘사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작정 보고 그리는 부분이 별로였다. -생각 감정을 배제하고 시각에 의존하기만 하면 돼서 편한데 하지만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답답하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싶은데 똑같이 형태로 똑같이 그려야 해서 싫다. -완성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세세하게 봐야하는 게 힘들다. 	사실적 관찰 표현에 치중된 수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런데 하다 보면 졸리다. -딱히 재밌는 점이 없고 지루해서 싫었다. -딱히 기억에 없다. 솔직히 재밌는지 모르겠다. -할 때마다 비슷한 것을 많이 해서 지루하였다. -뭔가 맨날 하면 똑같은 것만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과정의 지루함 (반복적이고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사실적인 표현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사실적 관찰 표현을 기준으로 자신의 작품을 남과 비교하고 좌절하는 과정에서 관찰 표현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적인 관찰 표현에만 한정지어

그리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 재미가 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수업이 반복적이고 변화가 없어서 재미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즉 관찰 표현 수업이 특정한 틀과 기준에 갇혀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가 없다는 것은 곧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호기심이 없다면 관찰 표현은 마지못해 해야 하는 과제일 뿐이다. 대상을 오감을 통해 관찰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호기심은 몰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의 순간에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 (남창훈, 2010)

라. 자신감

[표9] 자신감 1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있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수 (38명)	0	5	14	15	4
비율 (%)	0	13	37	39	11

수업 전 학생들이 관찰 표현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을 알아 보기위한 문항이다. ‘아니다’가 39%, ‘보통이다’가 37%, ‘매우 아니다’가 11%로 총 87%의 학생이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반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자신감2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 미술 성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다. - 친구들이 잘 그린다고 해서 	결 과 물 에 대한 스스 로의 만족 및 외부의 평가

5명의 학생들이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스로의 만족에 의한 내부적인 평가와 친구나 선생님의 의한 긍정적인 평가와 같은 외부적인 평가가 그 이유였다.

[표11] 자신감3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대로 묘사가 안 된다. - 그냥 못 그려서 - 사실적으로 묘사가 안 되기 때문에 - 표현이 잘 안 된다. - 재밌긴 한데 완성을 못한다. - 똑같이 못 그린다. 	사 실 적 인 표현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 봐도 반에서 내가 제일 못 그리는 것 같다. - 미술 성적이 맨날 안 나온다. - 누가 봐도 못 그림 	사실적 표 현 중심의 평가 기준 및 평가 경 험

자신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이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미술 점수가 낮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의 관찰 표현 교육이 사실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획일적 기준으로 결과물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비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 표현교육은 학생의 인식과 표현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만족도

[표12] 만족도1

그동안 해왔던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하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수 (38명)	0	4	15	16	3
백분율 (%)	0	11	39	42	8

학생들이 관찰 표현 학습의 결과물에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아니다가 42%, 보통이다가 39%, 매우 아니다가 8%로 총 89%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표13] 만족도2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사가 잘 된 것 같다. - 그래도 열심히 그렸다. - 재밌고 집중해서 만족한다. -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다.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

38명의 학생들 중 4명의 학생이 수업 전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하였다. 대부분 묘사가 뜻대로 되어 결과물에 만족한 것이 만족의 이유였다. 또한 결과물이 아닌 과정 자체에 스스로 흥미를 갖고 몰입하여 진행한 것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명 있었다.

[표14] 만족도3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못 그려서 마음에 안들 -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 못 그려서 다시 그리고 싶다. 마음에 안든다. - 안 똑같음. 못 그렸음 - 제대로 질감을 표현하지 못해서 	사실적인 표현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다. - 별로 애정이 안 간다. - 솔직히 좀 억지로 그렸다. - 재미없음 	흥미 및 관심이 없음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적 표현능력의 부족을 그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과정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서 결과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관찰 표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적 표현만이 관찰 표현의 목적이 아님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관찰 표현 과정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관찰 표현에 의미를 갖고 주체적으로 관찰 표현하기 위해서는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관찰 표현 수업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답을 제시하는 교육이 아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질적인 수업을 지향해야한다.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 과정중심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사전 관찰 표현 결과물 분석과 사전 설문지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관찰 표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사전 관찰 표현 결과물 분석 결과 학생들은 단순히 대상의 외곽을 따라가는 보고 그리기 수준의 관찰 표현을 하고 있으며 관습적이고 수동적으로 관찰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 설문지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이전 관찰학습은 대부분 사실적인 표현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대부분 관찰 표현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보고 그리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찰 표현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조화되며 실제적인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2.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발방향

본 연구에서 고안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은 훌륭한 관찰 표현 결과물을 위해 표현 기술이나 재료 사용법 등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크리슈나무르티(1993)는 “자신 내에 온 세계가 있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배울지를 안다면 문은 바로 거기에 있으며 열쇠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자신 이외의 그 누구도 열쇠나 문을 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 했다(J. Krishnamurti, 1993, Betty Edwards 재인용, 2015) 본 연구에서 고안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자신만의 관점으로 대상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미술시간이나 학

원 등의 교육 외에도 다양한 tv나 인터넷 매체, 웹툰 등 다양한 시각 정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관찰의 틀을 제한할 수 있고 학생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적인 관찰 표현능력을 잊게 한다. 이호철(2017)은 이러한 생명이 없고 도식적인 그림을 '죽은 그림'이라 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관념에서 벗어나 삶을 풍부하게 가꾸는 '살아있는 그리기'를 제시했다. 필자는 움직임이라는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관찰 표현의 도식화된 틀을 다시 실제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로 돌리고자 한다. 즉, 고정적이고 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시켜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움직임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역량중심교육과정과도 그 방향을 같이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은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 융합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표는 교과 역량 요소 및 의미를 정리한 표이다.

<표15> 교과 역량

역량 요소	의미
미적 감수성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
시각적 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발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본 연구에서 고안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교과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미적감수성과 관련이 있다. 움직임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통해 대상을 지각함으로써 미적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둘 째, 시각적 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다. 관습적 관찰이 아닌 자신만의 관찰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시각적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 째, 창의 융합 능력과 관련이 있다. 자신만의 관점을 통한 관찰 표현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공간 속에서 움직임 교육이 미술교육과 융합 하여 더욱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 진다.

넷 째, 미술 문화이해 능력과 관련이 있다. 움직임 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표현으로써의 관찰 표현교육을 통해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른 것을 보고 느끼며 다원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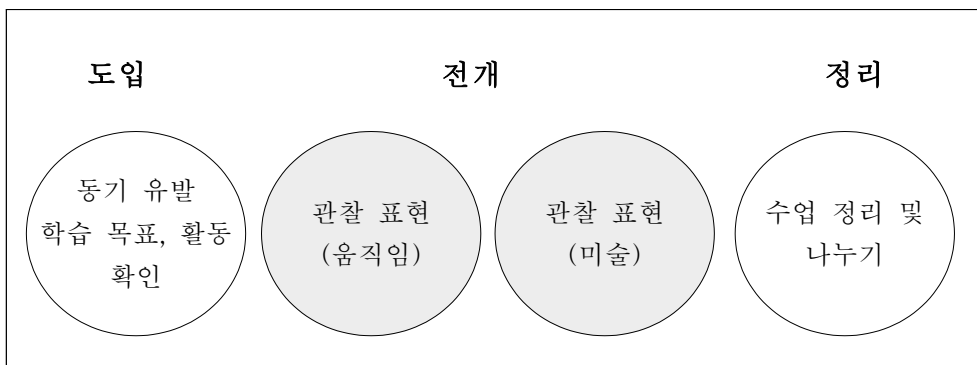
다섯 째,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다. 움직임을 통한 교육은 그 자체로 자기 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관찰 행위를 통해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개발 성찰적 기능을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고안한 관찰 표현교육은 미술교과의 교과 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움직임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은 현재의 교육과정과 동 떨어진 교육이 아닌 현 교육과정의 흐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학습 형태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설정하였다. 수업은 총 5차시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표16] 프로그램 학습 형태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도입단계에서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동영상 및 PPT 매체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목표 및 활동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수업에 흥미와 동기를 갖게 된다.

이후 본 수업을 전개하며 먼저 관찰 표현의 대상을 제시한다. 관찰 표현의 대상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물, 풍경, 인물을 고루 포함하였다. 그리고 움직임을 통한 관찰 표현을 진행하고 그 뒤에 미술 관찰 표현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움직임을 통한 관찰 표현 단계를 통해 대상을 다각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를 토대로 미술 관찰 표현을 진행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더욱 풍부한 관찰과 표현이 가능하다.

움직임과 미술 관찰 표현이 끝난 뒤에는 활동 감상지를 작성하며 작품과 수업 통해 느낀 점 및 배운 점에 대해 스스로 성찰,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 다함께 작품과 수업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수업이 마무리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이성적 관찰 표현과 감성적 관찰 표현의 두 가지 관찰 표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총 5차시 중 1, 2차시 수업은 이성적 관찰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3, 4, 5차시 수업은 주관적 관찰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이성적 관찰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객관적, 사실적 특징들을 날카롭게 포착할 수 있다. John Ruskin(2011)은 사물을 바라보는 완벽한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날카롭고 정확하고 끈질긴 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는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John Ruskin, 2011). 또한 주관적 관찰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상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의 틀을 확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두 가지 표현 방식을 모두 접함으로써 관찰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성적 관찰 표현으로 구성된 1, 2 차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시에는 오감을 이용한 정물 관찰을 통해 시각으로만 관찰했을 때는 포착하지 못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여 대상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관찰 표현할 수 있다. 2차시에는 일상동작을 마음을 통해 관찰 표현함으로써 보다 섬세하고 분석적으로 일상동작을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주관적 관찰 표현으로 구성된 3, 4, 5차시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차시에는 손의 움직임에 의하여 직접 감정을 표현해봄으로써 대상에 보다 깊숙이 감정이입하게 되고 자신만의 주관적 관찰 표현을 할 수 있다. 4차시에는 나무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을 통해 관찰하고 직접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 나무가 되어 표현해봄으로써 자신만의 관찰 표현이 가능하다. 5차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몸을 통해 소통하는 움직임 교육을 통하여 감정이입과 상상력에 의한 관찰 표현에서 나아가 보다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찰 표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상의 유의점은 이수경이 제시한 ‘예술 통합놀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점’을 관찰 표현 프로그램에 맞게 참고,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첫째,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재료, 시간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피아제는 “교사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이 놀이하는 곳에서 가능성 있는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관찰 표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결과물이나 단순한 표현 기법 등을 지도하기보다는 관찰 표현의 개념적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질문, 토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지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지나친 제한, 엄격하고 평가적인 분위기는 엄격히 피해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고무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관찰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격려하고 관찰 경험과 표현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관찰 경험은 표현에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따라서 가능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한다.

다섯째,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관찰 표현에서 지나친 이성의 강조는 학생의 자유로운 관찰과 표현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아이스너(E. W. eisner)에 의하면 지나치게 감성만을 강조하는 관찰 표현 교육은 지성을 발달시키는 미술의 기본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E. W. eisner, 2001). 관찰 표현 교육의 방향은 이성과 감성 교육을 조화롭게 실시하여 미적인 시각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기르고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작품의 완성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과정에 더욱 가치를 두고 학생들이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 개개

인이 관념이 아닌 자신의 잠재적인 창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이 관찰 표현을 함에 있어 그림이 사실적으로 얼마나 대상과 닮았는지 관심을 두기보다는 대상을 얼마나 자신만의 시각으로 솔직하고, 자유롭게 관찰하고 표현하였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교사는 학생들의 관찰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표현의 결과물들을 옳고 그름, 더 좋고 나쁨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각각의 결과물들이 개개인의 관찰에 의한 고유한 결과물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관념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창의적인 표현을 진행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지도안

1) 1차시

[표17] 프로그램 지도안 1

주제	정물 관찰 표현				
학습목표	오감을 이용하여 정물을 관찰하고 이를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흐름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목표 확인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알려준다.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인지한다.	15분	

	<p>동기 유발</p> <p>학습 활동 확인</p>	<p>-오감과 관련된 동영상 보여 준다</p> <p>-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p>	<p>- 삶과 오감이라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는다.</p> <p>-학습활동에 대해 인지한다.</p>		
<p>관찰 표현(음 직임)</p>	<p>오감 으로 관찰 하기</p> <p>모듬별 관찰 내용 토론</p>	<p>-불을 끄고 명상을 실시하여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고 오감을 예민하게 한다.</p> <p>-<오감 활동지>를 나눠 준다 .</p> <p>-안대를 나눠주고 오감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활동지에 관찰내용을 적도록 지도한다.</p> <p>-모듬별로 활동지를 토대로 관찰내용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다.</p>	<p>- 명상을 통해 차분한 마음을 갖고 오감에 집중한다.</p> <p>-<오감 활동지>를 작성하며 자신이 오감을 통해 무엇을 관찰했는지 정리한다.</p> <p>- 활동지를 통해 작성한 관찰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p>	45 분	<p>-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차분한 배경 음악을 틀어 놓는다.</p>
<p>관찰 표현 (미술)</p>	<p>미술로 표현하 기</p>	<p>-활동지에 적은 관찰내용을 토대로 정물을 다시 관찰하며 미술로 표현하도록 한다.</p>	<p>-관찰 내용을 토대로 정물을 보며 미술로 표현한다.</p>	45 분	<p>-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p>

					-표현의 결과가 아닌과 정에초 점을두 도록지 도한다.
정리	감상 나누기	- 활동 감상지를 나누어 주고 스 스로 오늘 활동 에 대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감상지를 적 으며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성찰하고 정리한다.	15 분	

2) 2차시

[표18] 프로그램 지도안 2

주제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학습목표	마음을 통하여 일상 동작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흐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목표 확인 동기 유발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알려준다.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인지한다.		

	학습 활동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임 영상을 보여 준다. -직접 마임 시범을 보여준다. -학습 활동에서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임 영상 및 시범을 보며 학습활동에 호기심을 갖는다. -학습활동에 대해 인지한다. 		
전개	관찰 표현 (움직임)	-일상동작을 마임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일상동작을 관찰하여 마임으로 표현하여 발표한다.	45 분	
	관찰 표현 (미술)	-발표한 일상동작 마임을 미술로 관찰 표현하도록 한다.	-자신이 발표한 마임의 일상동작을 미술로 관찰 표현한다.	45 분	
정리	감상 나누 기	-활동 감상지를 나누어 주고 스스로 오늘 활동에 대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감상지를 적으며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성찰하고 정리한다.	10 분	

3) 3차시

[표19] 프로그램 지도안 3

주제	손 (감정) 관찰 표현				
학습목표	손을 관찰하여 자신의 감정을 움직임과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흐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목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활동 확인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알려준다. -감정과 관련된 동영상 영상을 보여준다.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감정표현과 관련된 PPT 자료를 보여준다. -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인지한다. -언어 외에 신체를 통한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함을 이 해한다. -학습 활동에 대해 인지한다.	10 분	
전개	관찰 표현 (움직 임)	-팔정(八政-희노애 락애오욕) 중 하나 가 적힌 카드를 뽑고 이를 손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팔정(八政-희노애 락애오욕)카드를 뽑고 그 감정을 손 움직임 으로 표현한다. -바료한 친구의 손	50 분	-보다 적 극 적 인 표 현 을 위해 자 신이 최 근에 느 낀 감정

		-발표한 친구의 손 움직임이 어떤 감정인지 맞추도록 지도한다.	움직임이 어떠한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맞춘다.		을 떠올려 보도록 유도한다.
	관찰 표현 (미술)	-발표한 손 움직임을 이용한 감정표현을 미술로 관찰 표현하도록 한다.	-손을 소재로 자신의 감정을 미술로 표현한다.	45 분	
정리	감상 나누기	-활동 감상지를 나누어 주고 스스로 오늘 활동에 대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감상지를 적으며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성찰하고 정리한다.	10 분	

4) 4차시

[표 20] 프로그램 지도안 4

주제	나무 관찰 표현				
학습목표	-오감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나무를 관찰할 수 있다. -관찰을 통해 느낀 점을 움직임과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흐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p>학습 목표 확인</p> <p>동기 유발</p> <p>학습 활동 확인</p>	<p>-인사하기</p> <p>-학습목표에 대해 알려준다.</p> <p>-나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보여준다.</p> <p>-학습 활동에서 대해 설명한다.</p>	<p>-인사하기</p> <p>-학습목표에 대해 인지한다.</p> <p>-대상에 대해 주관적인 관찰을 토대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한다.</p> <p>-학습활동에 대해 인지한다.</p>	10 분	
전개	<p>관찰 표현 (움직임)</p>	<p>-5명씩 조를 나누고 마음에 드는 나무를 선정하도록 한다.</p> <p>-나무를 오감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관찰하게 한다.</p> <p>-나무를 통해 느낀 주관적 인상을 토대로 움직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나무를 표현하도록 한다.</p> <p>-조별발표를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p>	<p>-야외에 나가 인상 깊은 나무를 선정한다.</p> <p>-오감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나무를 관찰한다.</p> <p>-관찰을 통해 느낀 인상을 움직임을 통해 표현한다.</p> <p>-발표를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눈다.</p>	45 분	<p>(교사는 학생들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상상력을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잎맥, 세포, 백년 뒤의 나무 등을 상상해 볼 것을 권유할 수 있다.)</p>

	관찰 표현 (미술)	- 신체활동을 통해 느낀 나무의 인상 과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게 한다.	- 나무 관찰과 신체 표현활동을 통해 느 낀 점을 미술로 표 현한다.	45 분	다.) 자 신 이 느낀 점을 솔 직 하 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정리	감상 나누 기	-활동 감상지를 나 누어 주고 스스로 오늘 활동에 대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감상지를 적 으며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성찰하고 정리한다.	10 분	

5) 5차시

[표21] 프로그램 지도안 5

주제	눈동자 관찰 표현			
학습목표	-움직임교육을 통해 몸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 -친구에 대한 자신만의 느낌을 담아 친구의 눈동자를 미술로 관찰 표현할 수 있다.			
수업흐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목표 확인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인사하기 -학습목표에 대해	10 분

	동기 유발 학습 활동 확인	알려준다. -눈을 통해 소통하 는 동영상 및 움직 임으로 소통하는 PPT를 보여준다. -학습 활동에서 대 해 설명한다.	인지한다. -눈을 통해 소통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학습활동에 대해 인지한다.		
전개	관찰 표현 (움직 임)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고 다양한 창의적 움직임 활 동을 지도한다. 1)서로 등을 기대 고 심장소리 느끼 기 2)손가락으로 리드 하고 리드받기. 3)눈 가리고 리드 하고 리드받기. 4)서로 거울 되어 따라 하기 5)눈으로 대화하기	창의적 움직임 활 동을 통해 파트너와 소통한다.	45 분	상대방에 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을 어둡 게 하거나 눈가리개 를 통해 눈을 가린 다.
	관찰 표현 (미술)	-친구의 눈동자를 보고 미술로 표현 하기	-친구의 눈동자에 대한 인상 및 감정 을 미술로 관찰 표 현한다.	45 분	
정리	감상	-활동 감상지를 나	-활동 감상지를 적	10	

	나누 기	누어 주고 스스로 오늘 활동에 대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으며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성찰하고 정리한다.	분	
--	---------	---	----------------------------------	---	--

IV.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실행

1.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프로그램 실제

1) 1차시 : 정물 관찰 표현

수업의 도입부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오감을 비롯한 감각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오감을 비롯한 감각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에 신기해하고 수업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 후 본격적인 학습활동을 시작하며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 뒤 명상을 실시하였다. 다소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차분하게 정리 되었다. 명상을 하며 시각 외의 오감을 예민하게 느껴볼 것을 권유하였다.

명상이 끝난 뒤 정물 별로 모듬을 나누고 안대와 오감 활동지를 나누어 주었다. 안대를 쓰게 하고 시각을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에서 오감을 통한 관찰 활동을 시작 하였다. 학생들은 시각이 차단되었다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더욱 집중해서 활동에 임했다. 이 때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어서 감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오감 중 하나의 감각을 통한 관찰이 끝나면 바로 오감 활동지에 관찰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오감 관찰 활동지 작

성 시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사람마다 다를
을 알려주었다. 관찰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성실하게 내용을 적었다. 오감 관찰이
 끝나고 난 뒤에는 모듈별로 자신이 관찰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
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찰내용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의 관찰내용도 흥미를 갖고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찰내용 중 인상 깊은 부분을 오감 활동지에 기
록하도록 하여 관찰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
어 예상 시간보다 10분정도의 시간을 더 주었다.

그리고 10분정도의 주변 정리 및 쉬는 시간을 갖고 미술로 관찰 표현하
기를 진행하였다. 표현 방법은 연필로 자신이 관찰한 바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수업 전 같은 주제로 관찰 표현 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한 수업 전에는 정물을 보기 보다는 스케치북을 보는 시간이
 많았다. 즉 실제 정물을 보고 관찰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물에
대한 관념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감 관찰 활동 후
에는 스케치북 보다 정물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활동 감상지를 나누어 주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
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활동지와 수업 전후 그림을 가지고 수업을 통
해 달라진 점과 소감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 스스로 뚜
렷한 전 후 그림의 차이에 신기해하며 오감을 통한 관찰 표현의 중요성
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수업에 늦는 학생이 많아 수업의 흐름이 중간 중간 끊기
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주의를 주어 이 후 수업에서는 제 시간에
모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림3>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실제

2) 2차시: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수업의 도입단계에서는 마임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와 동기를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임을 통한 2차시 학습활동에 대해 간략히 예고하였다.

그 후 본격적인 학습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마임을 직접 시범을 통해 보여주었다. 유의사항으로 마임을 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각자 마임을 준비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흥미로워 했지만 소수의 아이들은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끄러워 연습한 것에 비해 앞에서 마임을 섬세하게 보여주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후에 마임을 통해 관찰 표현한 것을 미술로 관찰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필을 통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대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수업 전보다 손을 포함한 일상동작을 실제적이고 그리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 관찰 표현 활동이 끝난 뒤에는 활동 감상지를 작성하고 수업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으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림4> 손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실제

3) 3차시: 손(감정) 관찰 표현

수업의 도입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감정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했다. 동영상은 감정이 메말라가는 현실과 자기감정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언어 외에 신체를 활용한 감정 표현과 관련된 PPT 자료를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동영상 내용에 공감하며 수업에 호기심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할 ‘손을 이용해 감정표현하기’ 라는 학습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었다.

팔정(八政-희노애락애오욕) 중 하나의 감정을 쪽지에 적고 이를 뽑게 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손 움직임으로 연습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어떻게 준비할지 막연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근에 느낀 나의 감정’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각자 발표가 끝나면 손으로 표현한 감정이 팔정(八政) 중 어떤 감정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상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그 감정을 맞추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언어 나 표정 외의 신체 부위나 대상을 통해서도 감정을 이입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손을 주제로 관찰하여 미술로 감정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했다. 자신이 느끼고 관찰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 표현기

법이나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작품 제작 후에는 한명씩 앞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다른 학생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후에는 활동 감상지를 작성하며 그 날 수업에 대한 소감을 스스로 정리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림5] 손 (감정) 관찰 표현 수업실제

4) 4차시: 나무 관찰 표현

수업 도입부에 피피티를 통해 수업의 목표와 이번 차시 활동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다. 문학, 무용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나무를 주제로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번 차시 활동이 단순히 나무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대한 나의 인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움직임으로 자연을 표현한 사례를 보여주고 조를 나누어 나무에 대한 자신만의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감각을 열고 상상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 까지 관찰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무의 온도, 세포, 뿌리, 과거와 현재 등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듈별로 야외에 나가 인상 깊은 나무를 하나씩 정하고 신체의

감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나무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팀은 교사가 직접 옆에서 ‘나무가 과거에는 어땠을 것 같은지, 10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은지’ 질문을 던지는 등 열린 질문을 던져주어 자연스럽게 상상을 통한 관찰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안내해 주었다. 3학년 학생들을 수업할 때에는 비가오고 어두워져서 관찰에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비와 관련하여 나무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관찰이 끝난 뒤에는 실내로 돌아와 모듬별 움직임 표현을 위한 연습을 진행하였다. 배경음악을 정하게 하여 움직임 표현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이 나와서 발표할 때 보다 모듬별로 나와 발표를 할 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본인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무엇을 표현한 것 같은지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조의 발표가 끝나면 움직임 표현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었다. 이전 수업에서 개별로 움직임 발표를 할 때 보다 조별 발표에서 학생들은 각자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후에는 미술로 자신이 느낀 나무에 대한 인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수업 전 보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작품에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료의 사용도 굉장히 대범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6]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실제

5) 5차시: 눈동자 관찰 표현

이번 차시 활동은 다른 차시활동에 비해 비교적 활동 범위가 넓고 동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업의 도입부에는 오늘 진행할 활동에 대해 피피티를 통해 설명하였다. 새로운 공간과 다양한 움직임 활동에 대해 학생들은 많은 호기심과 기대를 보였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며 먼저 두 명씩 조를 나누었다. 첫 활동은 등을 기대고 서로의 심장소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심장소리를 느끼지 못하다가 차분히 집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활동은 손가락을 맞대게 한 뒤 한명이 힘을 주고 이르면 다른 한명은 이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활동을 하였다.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고 이후에는 역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명이 힘을 주면 다른 한명이 힘을 빼고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너무 빠르게 하면 상대방이 따라갈 수 없으니 서로 배려하며 진행하도록 지도 하였다. 다음 활동은 안대를 주고 2명의 파트너 중 한명의 눈을 가린다. 눈이 가려진 학생은 뒤에서 자신의 파트너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앞에 있는 파트너의 이끌어짐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서워 하다가 나중에는 파트너를 신뢰하고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파트너를 이끌어 줄 때와 이끌어짐을 받을 때 중 언제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파트너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눈으로 대화하기 활동을 하였다. 활동 전에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The artist is present’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5분간 파트너의 눈을 보고 서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 중에 눈물을 보인 학생도 있었다. 이 후 친구의 눈동자를 관찰하고 느껴지는 주관적인 인상을 자유롭게 미술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활동 감상지를 작성하고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간단히 준비한 다과를 먹으며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었다.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전보다 흥미를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동안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림7]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실제

2.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결과 분석

1) 1차시: 정물 관찰 표현

가. 활동 감상지 분석

[표22] 정물 관찰 표현1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 지루하지 않았다. - 평상시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더 진짜 같다. - 평소 미술시간에는 보고 그렸는데 냄새를 맡았던 것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다. - 그냥 보는 것보다도 직접 만지고 느껴보는 것이 훨씬 그림그리기 좋았다. 평소에도 그림을 그릴 때 오감을 다 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옥수수하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수분 때문에 기포소리도 나고 수염도 질감이 독특하고 옥수수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사물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살펴보면 ‘평상시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물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 한다’, ‘그냥 보는 것 보다도 직접 만지고 느껴보는 것이 훨씬 그림그리기 좋

았다.’, ‘옥수수하면 별생각이 없었는데 수분 때문에 기포소리도 나고 수염도 질감이 독특하고 옥수수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등의 언급을 통해서 오감을 통한 관찰 교육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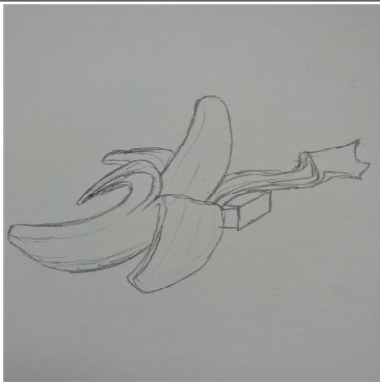

[표23] 정물 관찰 표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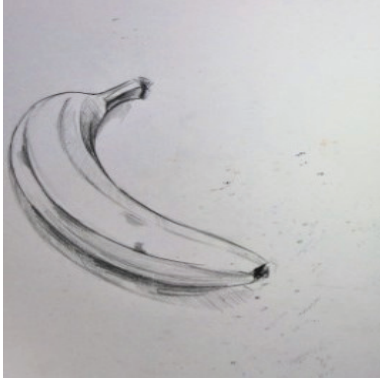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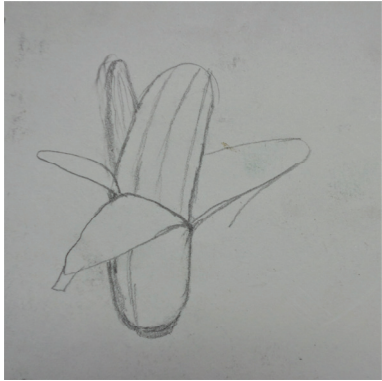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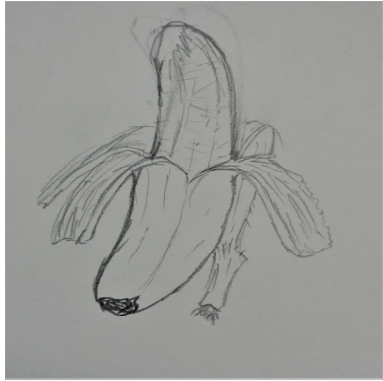
수업 전 그림과 수업 후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관찰해서 그린 그림은 오로지 단순한 외곽 형태에만 집중해서 그렸다면 두 번째 그림은 바나나의 다양한 질감, 냄새 등 더 관찰할 것이 많아 더 집중해서 그린 것 같다. - 먼저 그림은 그냥 쪽쪽 그었는데 수업에서 그린 그림은 굵기와 질감을 느끼면서 표현했다. - 솔직히 그냥 보고 그린 그림 때는 귀찮고 졸렸는데 두 번째는 재밌었다. - 처음에는 그냥 옥수수처럼 보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렸는데 오감으로 관찰하고 나니까 잎은 뭔가 미역줄기처럼 맨들맨들 하고 빛나는 느낌으로 그리고 싶고 알은 안에 뭔가 있으면서도 말랑말랑하고 빛나게 그리고 싶고 뿌리는 여자아이 긴 머리가 많이 엉킨 느낌으로 맛있게 그리고 싶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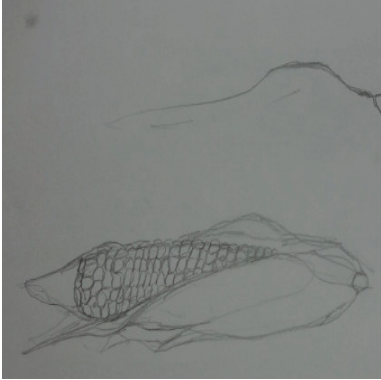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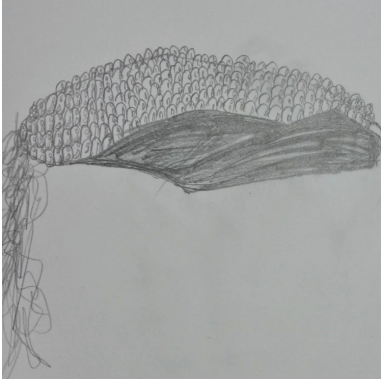
움직임 수업의 전 후 그림의 만족도 차이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움직임 수업 후 그림이 더욱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솔직히 그냥 보고 그린 그림 때는 귀찮고 졸렸는데 두 번째는 재밌었다.’, ‘첫 번째 관찰해서 그린 그림은 오로지 단순한 외곽 형태에만 집중해서 그렸다면 두 번째 그림은 바나나의 다양한 질감, 냄새 등 더 관찰할 것이 많아 더 집중해서 그린 것 같다.’, ‘먼저 그림은 그냥 쪽쪽 그었는데 수업에서 그린 그림은 굵기와 질감을 느끼면서 표현했다.’ 등의 언급을 통해 움직임 수업을 통해 관찰에 흥미를 갖게 되고

관찰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수업 후 그림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수업 전 후 결과물 분석

<div> <div><그림8>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1</div> <div>수업 전</div> <div>수업 후</div> </div>	
	
<p>수업 전 그림을 보면 전반적인 사물의 외곽형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감에 대한 관찰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p>	<p>바나나 껍질의 바깥과 안쪽 부분의 질감 차이가 느껴진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 속 내용물의 질감이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바나나를 먹는 사람을 그리는 등 자유롭고 적극적인 관찰 표현이 보인다.</p>

<div> <div><그림9>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2</div> <div>수업 전</div> <div>수업 후</div> </div>	
	
<p>전반적인 표현은 좋지만 다양한 형태적 변형이 없이 단순하게 그렸다. 주어진 바나나를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대로 그린 것을 볼 수 있다.</p>	<p>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바나나 속을 조각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바나나를 관찰 표현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p>
<div> <div><그림10>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3</div> <div>수업 전</div> <div>수업 후</div> </div>	
	
<p>관찰 표현이 대상의 외곽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필의 세기가 변화 없이 일정하다.</p>	<p>바나나의 미세한 털까지 관찰하여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연필세기의 변화가 보인다. 바나나 껍질은 딱딱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연필 세기를 강하게 하였고 바나나 껍질의 안쪽과 내용물은 비교적 약한 세기로 그려졌다.</p>

<그림11> 정물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4	
수업 전	수업 후
	
<p>옥수수 알맹이의 형태가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옥수수 껍질의 거친 질감과 수염의 부드러운 질감 등의 표현되지 않았다.</p>	<p>옥수수 알맹이의 다양한 변화를 관찰 표현하였다. 또한 옥수수 껍질의 거친 느낌과 부드러운 수염을 관찰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관찰 표현을 위해 연필을 세우거나 눕히는 등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p>

수업 전후 그림 분석을 정리해보면 오감을 통해 대상을 관찰한 이후 달라진 그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으로만 관찰했을 때는 포착하지 못했던 대상의 질감 등 보다 폭넓은 관찰이 가능해졌다. 둘째, 폭넓은 관찰의 결과 그림이 더욱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변했다. 셋째, 관찰한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재료를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대상의 형태를 변형하는 등 이전보다 관찰 태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였다.

2) 2차시: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

가. 활동 감상지 분석

<표24> 손 (일상동작) 관찰 표현1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간의 장면을 캐치해서 그리니까 그림에서 더 긴장감과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자주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사물이 없이 해보니 어렵지만 새로웠다. - 물병뚜껑을 열 때 힘을 주는 손가락에 신경을 써서 그렸다. - 미술 시간에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 재미있었다. - 사물의 그런 움직임과 느낌을 알았다. - 마임을 통한 관찰을 그림에 사용할 수 있었다. - 직접 동작을 취하면서 행동하니까 재밌었고 행동들이 기억이 되었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살펴보면 ‘직접 동작을 해보고 순간의 장면을 캐치해서 그리니까 그림에서 더 긴장감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직접 동작을 취하면서 행동하니까 재밌었고 행동들이 기억이 되었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등의 언급을 통해 직접 일상의 동작을 마임으로 해봄으로써 관념이 아닌 실제적 대상을 더 생동감 있게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자주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사물이 없이 해보니 어려웠지만 또 새로워서 좋았다.’, ‘미술 시간에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 재미있었다. ‘ 라는 언급을 통해서 마임 활동이 학생들에게 관찰 표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5> 손 (일상 동작) 관찰 표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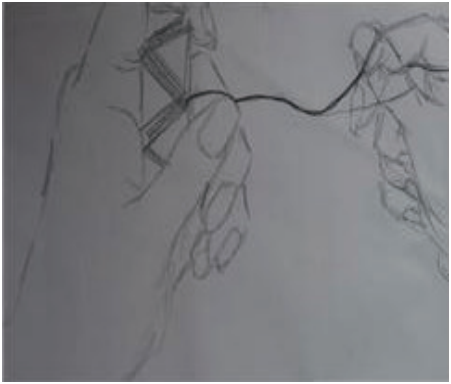
수업 전 그림과 수업 후 그림 중 어떤 것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중에 그림이 생동감이 있어서 좋았다. - 더 뭔가 표현이 재미있고 물건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해서 두 번째 그림이 더 좋다. - 수업 전 그린 건 그 사물에 느낌이 없었는데 두 번째 사물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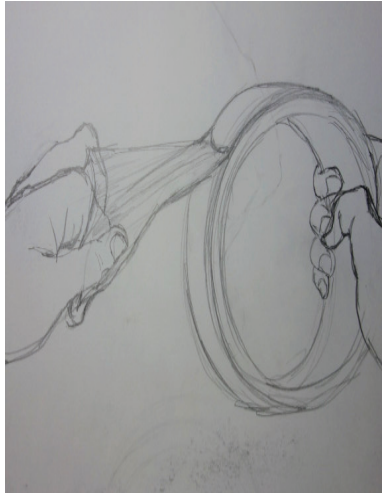
<p>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p>더 사물의 느낌이 좋아 보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후에 그림이 그림을 그릴 때 더 진짜 순간을 그릴 수 있었다. - 수업 전 그림은 다 비슷하고 단순해 보이는데 비해 수업 후 그림은 단순하지 않고 새로운 구도라서, 그리고 손의 힘이 느껴진다. -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강력할 때는 강력하고 변화가 있어서 좋다. - 무언가 좀 더 진짜처럼 그릴 수 있다. -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데로 그린 건데 진짜 행동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두 번째 그림은 진짜 행동하는 것처럼 나왔다. - 손 모양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었고 힘주는 곳에 더 강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 조금 더 생동감 있어 보이고 손 모양이 또렷해 보인다. - 첫 그림은 손의 근육이 느껴지지 않아서 두 번째가 더 좋다. - 수업 전에 그릴 때는 걸모습에만 신경 썼는데 테이프를 뜯을 때의 힘 등을 신경 쓰게 되었다. - 두 번째 그림, 단순히 동작을 관찰하는 것 말고도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낄 수 있어서 그리는데 강약을 넣거나 도움이 되었다.
--------------------------------------	--



수업 전후 그림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수업 전에 그릴 때는 걸모습에만 신경 썼는데 테이프를 뜯을 때의 힘 등을 신경 쓰게 되었다.’, ‘두 번째 그림, 그릴 때 단순히 동작을 관찰하는 것 말고도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낄 수 있어서 그리는데 강약을 넣거나 도움이 되었다.’ 등의 언급을 통해 대상을 눈으로만 관찰 표현 했을 때보다 마음을 통해 관찰 표현 후에 그림으로써 동작의 강약 등의 보다 실제적이고 섬세한 관찰 표현할 수 있게 됐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업 전 후 그림 분석

<div> <div><그림12>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1</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주어진 정물의 쓰임새와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손동작의 관찰 표현을 볼 수 있다.</p>	<p>잔을 잡고 물을 따르고 있는 실제적인 손동작의 관찰 표현을 볼 수 있다. 엄지와 검지에 힘이 들어가고 나머지 손가락에 힘이 빠져있다.</p>
<div> <div><그림13>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2</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주어진 정물의 쓰임새와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손동작의 관찰 표현을 볼 수 있다.</p>	<p>병을 열려고 하는 현장감 있는 손동작을 볼 수 있다. 병의 형태는 다소 어색하지만 병을 잡고 있는 손에서 그 압력을 느낄 수 있다.</p>

<그림14> 일상 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3	
수업 전	수업 후
	
주어진 정물의 쓰임새와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손동작의 관찰 표현을 볼 수 있다.	실타래를 풀고 있는 구체적인 손동작을 볼 수 있다. 실을 잡고 있는 손과 늘어진 실 등이 구체적으로 관찰 표현되어있다.

<그림15> 일상 동작 표현 수업 전후 그림4	
수업 전	수업 후
	
주어진 정물의 쓰임새와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손동작의 관찰 표현을 볼 수 있다.	한 손은 테이프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테이프를 뜯고 있는 손동작을 구체적으로 관찰 표현했다. 두 손의 힘에 의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림16〉 일상동작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5	
수업 전	수업 후
	
휴지를 잡고 있는 손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휴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관찰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휴지를 뜯는 순간의 현장감이 잘 관찰 표현되었다. 이에 따라 형태나 화면구성의 변화가 생겨 그림이 풍부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수업 전후 그림의 변화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수업 전에는 실제적인 동작을 관찰 표현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관찰 표현이 이루어졌다. 반면 수업 후에는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동작을 관찰 표현하고 있다. 둘째, 수업 후에는 잡고 있는 손가락의 압력 등을 관찰 표현하는 등 단순히 형태이상의 섬세한 변화까지 관찰하여 표현하였다.

3) 3차시: 손 (감정) 관찰 표현

가. 활동 감상지 분석

[표26] 손 (감정) 관찰 표현1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에서 다양한 감정들과 극적인 모습을 관찰해서 끌어올릴 수 있었다. - 처음엔 막막해서 그냥 그렸는데 손으로 감정을 직접 표현 할 때 사랑을 얼마나 새게 상대방을 잡고 싶은지 표현했는데 그게 그림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됐다. 심장이 뛰고 강한 압력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 - 자유로움을 느꼈다. 형체가 완벽하지 못해도 좋다. 편하고 내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분노와 스트레스 무언가를 꼭 잡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 담담한 속을 표현해보았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다.
--	--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형체가 완벽하지 못해도 좋다. 편하고 내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분노와 스트레스 무언가를 꼭 잡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 담담한 속을 표현해보았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다.’ 등의 언급을 통해 움직임 수업을 하고 난 후에 틀에 박힌 관찰 표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감정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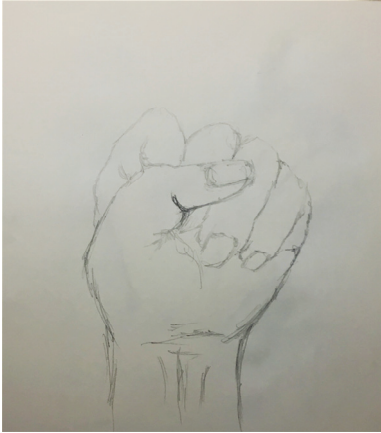

[표27] 손 (감정) 관찰 표현2



수업 전 그림과 수업 후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그릴 때는 관찰할 때 감정이입이 잘 안됐는데 두 번째 그릴 때는 자연스럽게 몰입했다. 그래서 다양한 색으로 내 감정을 표현했다. - 이전 그림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직접 감정을 손으로 해보고 나서 화나는 감정을 강하게 누르는 느낌을 주어 느낌을 표현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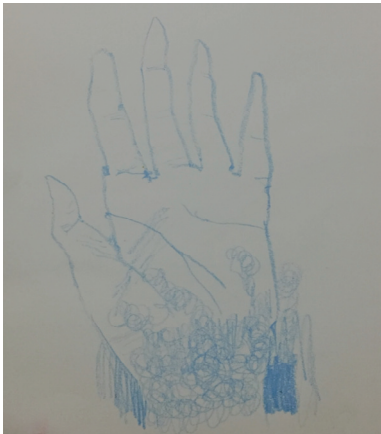

요?)	- 좀 더 격동적인 제스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



수업 전후 그림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처음 그릴 때는 관찰할 때 감정이입이 잘 안됐는데 두 번째 그릴 때는 자연스럽게 몰입했다. 그래서 다양한 색으로 내 감정을 표현했다.’, ‘이전 그림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직접 감정을 손으로 해보고 나서 화나는 감정을 강하게 누르는 느낌을 주어 느낌을 표현했다.’ 등의 언급을 통해서 움직임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손에 감정이입하여 자신만의 감정을 관찰 표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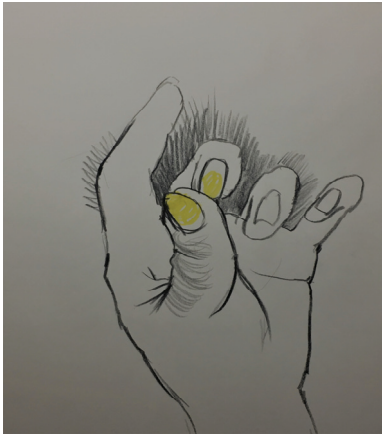

나. 수업 전 후 그림 분석



<div> <div><그림17>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1</div> <div>수업 전</div> <div>수업 후</div> </div>	
	
주먹을 쥐는 형태를 통해서 화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다. 형태적 변형이나 색의 사용이 전혀 없다.	화났을 때 열이 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8＞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2	
수업 전	수업 후
	
색의 사용이 한정적이다. 표현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손에 감정이입을 하여 따뜻한 감정을 그에 맞는 다양한 색상과 배경색을 통해 관찰 표현하였다. 색연필의 사용이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림19＞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3	
수업 전	수업 후
	
대상의 감정이입을 통한 관찰 표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대상에 대한 감정을 관찰 표현하였다. 주로 외적인 형태의 관찰 표현 중심으로 그려졌다.	대상과 대비되는 배경을 통하여 손의 감정을 보다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손끝의 색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div> <div><그림20>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4</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손동작과 색을 통해 ‘화’의 감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표현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볼 수 있고 구성상의 변화가 단순한 점이 아쉽다.</p>	<p>이전 그림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동작의 손 모양을 여러 개 배치하였다. 하나의 색을 사용하긴 했지만 외곽선의 강약 조절과 농담조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p>

<div> <div><그림21>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5</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색의 사용이 많지 않고 선의 속도 변화 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p>	<p>수업 전에 비하여 표현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선을 힘을 주어 사용 속도감 있게 표현하는 등 재료 사용이 다채로워졌다. 또한 손의 형태가 보다 극적으로 변화했다.</p>

〈그림22〉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6	
수업 전	수업 후
	
푸른색을 이용하여 슬픔의 감정을 표현했다. 비교적 감정이 잘 표현됐으나 구성이 다소 단순한 것을 볼 수 있다.	슬픔의 감정과 관련하여 보다 손동작이 보다 구체적이다. 손에 힘을 모두 뺀 동작을 취해 슬픔을 표현했다. 또한 차갑고 채도가 낮은 색상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23〉 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7	
수업 전	수업 후
	
관념적으로 슬픔은 파란색, 화는 빨간색 등의 관념적의 색을 사용하는 정도의 표현에 머무르고 있다. 단순히 손을 펴고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색의 사용이 보다 다채로워 졌다. 무언가를 움켜지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손동작을 관찰 표현하였다.

수업 전후 그림의 변화를 정리하자면 첫째, 수업 전에는 감정 관찰 표현에 있어서 관념적인 색을 사용했다면 수업 후에는 자유롭고 다양한 색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둘째, 관찰내용이 풍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재료 사용에 있어서 속도, 세기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수업 전에는 손동작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변화가 없었다면 수업 후에는 보다 극적이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변했다.

4) 4차시 - 나무 관찰 표현

가. 활동 감상지 분석

[표28] 나무 관찰 표현1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 나무를 보면 수업시간에 관찰했던 내용들이 생각날 것 같다. 더 보게 될 것 같다. -죽어가는 느낌, 허물을 벗는 느낌이 들었다.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무가 영혼이 있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을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나무의 모습을 그렸다. 감정을 담아 그릴 수 있어서 좋았다. -아무 말 없이 남에게 주기만 하는 나무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나무의 감정을 알 수 있었다. -직접 나무가 되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나니 나무와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오늘 관찰한 나무가 특별하게 느껴진다. -관찰의 중요성을 배웠다. 관찰을 더 잘 하니까 더 잘 그려지고 재밌었다. - 관찰을 더 잘해야 그림에 그게 잘 나타나는 것 같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 더 거침없이 몰입해서 들어가서 그런지 내가 느낀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다. - 나무의 표면의 질감과 내부의 느낌 등을 더 잘 느낄 수 있었고 속 안에 볼 수 없던 것을 상상을 통해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좋았다.
--	---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관찰의 중요성을 배웠다. 관찰을 더 잘 하니까 더 잘 그려지고 재밌었다’, ‘관찰을 더 잘해야 그림에 그게 잘 나타나는 것 같다.’ 등의 언급을 통해 움직임 활동을 통한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관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나무를 보면 수업시간에 관찰했던 내용들이 생각날 것 같다. 더 보게 될 것 같다.’, ‘나무가 영혼이 있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직접 나무가 되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나니 나무와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오늘 관찰한 나무가 특별하게 느껴진다.’ 등의 언급을 통해 움직임 교육을 통해 나무를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을 통해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관찰한 나무에 대한 애정과 개인적 감정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움직임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 더 거침없이 몰입해서 들어가서 그런지 내가 느낀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다.’ 등의 언급을 통해 움직임을 통한 관찰 표현 교육이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무의 표면의 질감과 내부의 느낌 등을 더 잘 느낄 수 있었고 속 안에 볼 수 없던 것을 상상을 통해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좋았다.’라는 언급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력을 통해 관찰 표현하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9] 나무 관찰 표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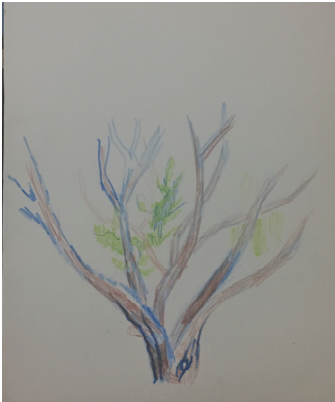

수업 전 그림과 수업 후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전에 그렸을 때는 그냥 주로 형상을 그렸지만 수업 후에는 나무 그 자체를 그린 느낌이었다. - 두 번째 그림에 더 감정이 담겨있고 더 느낌이 있어서 좋다. - 나무를 더 잘 관찰하고 더 생각하고 느끼고 나무의 심경을 잘 나타내서 -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리니까 나무와 더 교감하고 느낌의 차이가 있었다. 더 감정표현을 할 수 있었다. - 감정이 더 들어가서 특별해져서 좋다. - 나무를 좀 더 깊게 느끼고 생각해서 그려서 -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색도 더 다양하게 쓰고 재밌게 그릴 수 있었다. - 첫 번째 나무는 특정나무가 아닌 ‘나무’라는 물체를 두고 생각한 것이라 뭔가 애매모호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나무였고 그 나무를 여러 방법으로 느끼고 표현한 뒤에 그린 거라 그런지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음
---	---



수업 전후 그림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는 모습만 보고 그렸고 두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서 그려서 두 번째 그림이 더 좋다.’, ‘첫 번째 나무는 특정나무가 아닌 ‘나무’라는 물체를 두고 생각한 것이라 뭔가 애매모호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나무였고 그 나무를 여러 방법으로 느끼고 표현한 뒤에 그린 거라 그런지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수업 전에 그렸을 때는 그냥 주로 형상을 그렸지만 수업 후에는 나무 그 자체를 그린 느낌이었다.’ 등의 언급을 통해 수업 후에 그린 나무 그림이 수업 전 그림에 비해 자신만의 관점을 토대로 나무의 본질을 관찰 표현하였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수업 전 후 결과물 분석

<div> <div><그림24>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1</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콘테를 이용해 단순하지만 나무의 느낌을 잘 표현했다. 하지만 나무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이나 감정의 관찰 표현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p>	<p>색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나무를 통해 자신이 느낀 인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관찰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p>
<div> <div><그림25>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2</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선의 표현이 단순하다. 그리고 사물의 외곽 위주로 그려졌다.</p>	<p>선의 표현이 보다 다채로워 졌다. 그리고 보다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나무의 질감표현이 두드러지고 나무의 형태도 보다 역동적으로 관찰 표현되었다.</p>

<그림26>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3	
수업 전	수업 후
	
<p>나무의 다양한 형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도식적으로 나무를 표현하였다. 나뭇잎의 표현도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긴 했으나 표현방법이 다소 관념적이고 소극적 이다. 또한 대상이 그림 가운데에 단조롭게 배치되어있다.</p>	<p>나무의 다양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관찰 표현 하였다. 나뭇잎의 표현도 이전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워 졌다. 또한 구도 가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수성 싸인펜을 물을 이용해 번지게 하는 등 보다 다양한 기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p>
<그림27>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4	
수업 전	수업 후
	
<p>비교적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고 나무에 대한 자신만의 관찰 표현이 보인다.</p>	<p>수업 전의 그림 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채화의 사용이 보다 자연스러워졌다.</p>

<div> <div><그림28>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5</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다양한 색상이 보이지만 구성상 다소 단순하다.</p>	<p>형태가 비교적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다양하고 세련된 색감이 사용되었다. 수채화 사용에 있어서도 뿌리기 기법, 갈필 등의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p>
<div> <div><그림29>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6</div> <div>수업 전수업 후</div> </div>	
	
<p>나무의 형태나 색의 표현이 다소 소극적이다.</p>	<p>나뭇가지의 표현이 자연스러워 졌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나무를 통해 자신이 관찰한 느낌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p>

<그림30> 나무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7	
수업 전	수업 후
	
나무의 외적인 모양은 비교적 잘 관찰 표현 했으나 구도나 형태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 단조롭다.	나뭇가지의 빈 공간을 다양한 색으로 채워 넣는 창의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시점이 일반적인 시점이 아닌 평상시에 잘 보지 않는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이 사용되었다.

수업 전 후 그림 분석을 정리하자면 첫째, 수업 전에는 주로 기쁨과 슬픔 정도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표현한데 반해 수업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나무의 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찰 표현하였다. 셋째, 수업 전에 비하여 수업 후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기법 또한 다채로워졌다. 넷째, 수업 전에는 구도가 단순했던 반면 수업 후에는 보다 역동적인 구도가 보여 진다.

5) 5차시: 눈동자 관찰 표현

가. 활동 감상지 분석

[표30] 눈동자 관찰 표현1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통해 많은 것을 관찰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눈이 그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 눈을 가리고 친구의 어깨와 친구의 말만 듣고 걸을 때 조금의 스릴과 긴장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친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 좋았다. - 말은 안했지만 친구 눈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고 말 못하는 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	--

수업을 통해 느낀 점 및 배운 점을 묻는 질문에 ‘눈이 그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눈을 가리고 친구의 어깨와 친구의 말만 듣고 걸을 때 조금의 스릴과 긴장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친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언급을 통해서 학생들이 움직임교육을 통해 친구와 소통할 수 있게 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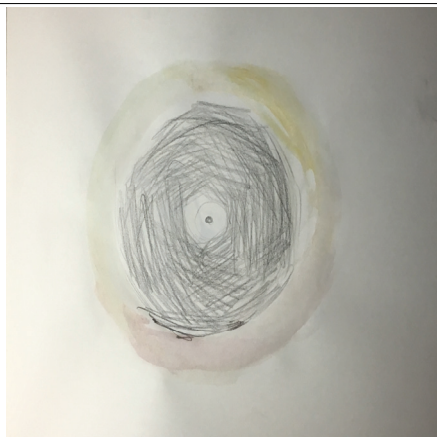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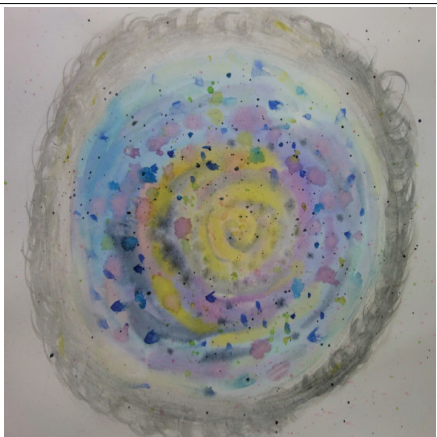
[표31] 눈동자 관찰 표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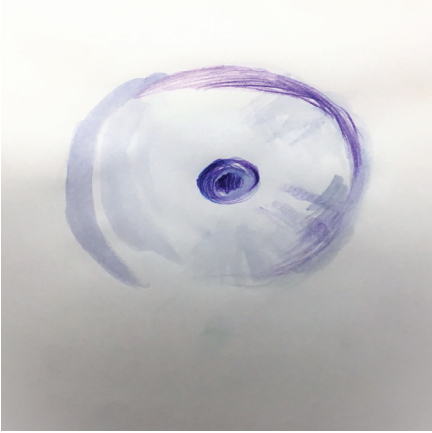

수업 전 그림과 수업 후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그림 때는 어떻게 그림지 막막했고 친구의 감정을 관찰하고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두 번 그림 때는 공감을 할 수 있었다. - 첫 번째 그림은 자꾸 눈의 형태에 집착해서 형태를 잘 담아내려고만 하고 두 번째는 봤을 때의 느낌에 더욱 집중해서 단순히 형이 아닌 마음을 그려내는 느낌이었다. - 친구의 외형 뿐 아니라 마음까지 관찰하고 받은 느낌을 그려서 더욱 그 친구를 잘 담아내는 느낌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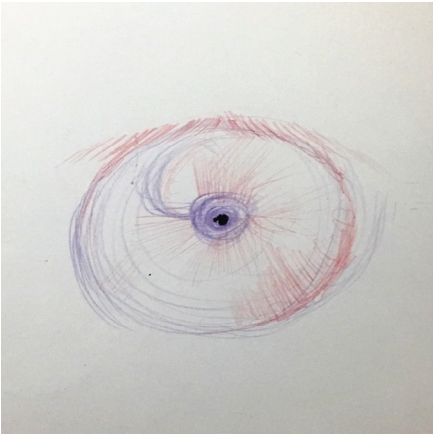

‘첫 번째 그림은 자꾸 눈의 형태에 집착해서 형태를 잘 담아내려고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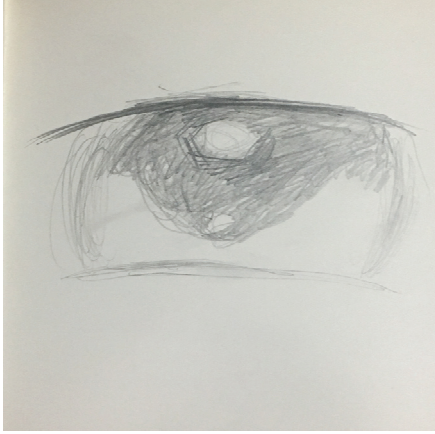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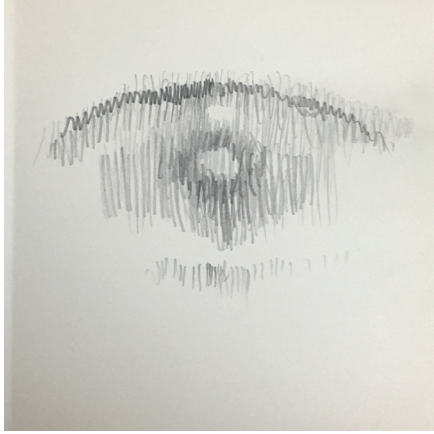
하고 두 번째는 봤을 때의 느낌에 더욱 집중해서 단순히 형이 아닌 마음을 그려내는 느낌이었다.', '친구의 외형 뿐 아니라 마음까지 관찰하고 받은 느낌을 그려서 더욱 그 친구를 잘 담아내는 느낌이다.' 등의 언급을 통해 움직임 교육을 통한 친구와의 소통을 토대로 인물의 외적인 형태를 넘어서 내면까지 관찰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업 전후 작품 분석

〈그림31〉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1	
수업 전	수업 후
	
색의 사용이 한정적이다.	바깥쪽에는 작은 원이 반복되고 안쪽에는 뿌리기 기법이 사용되는 등 다채로운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림32〉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2	
수업 전	수업 후
	
<p>눈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표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상에 대한 관찰 표현에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가 보인다.</p>	<p>눈동자의 모양에서 보다 다채롭고 주관적인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경직되어 있던 형태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전 그림보다 보다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성실히 관찰 표현에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그림33〉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3	
수업 전	수업 후
	
<p>눈동자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나 자신만의 인상 및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p>	<p>자신만의 관점으로 눈동자를 관찰 표현하였다. 마치 해가 뜨는 것 같은 은유적인 표현이 보인다.</p>

<그림34> 눈동자 관찰 표현 수업 전후 그림4	
수업 전	수업 후
	
눈동자의 외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자신만의 인상을 관찰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필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세로 선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표현하였다.

수업 전과 후의 그림의 비교분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전에는 눈동자의 외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관찰 표현하였다. 반면 수업 후에 눈동자의 형태를 넘어서 보다 자유롭게 관찰 표현하였다. 둘째 색의 표현이 보다 다채로워졌다. 셋째, 수업 전에는 재료 사용이 다소 경직되어 있다. 반면 수업 후에는 재료를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사후 설문지 분석

‘사후 설문지 분석’에서는 수업 후 학생들의 관찰표현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만족도, 능력향상, 인식의 변화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앞서 관찰 표현 교육에 대해 연구한 고은영(2010)과 백정민(2007)의 설문지를 참조하였다.

<표32> 사후 설문지

	문항
흥미	관찰 표현에 흥미를 느끼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감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족감	관찰 표현 수업의 결과물에 만족하나요?
	수업 전 후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만족스럽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찰 표현 능력 향상	수업을 통해 관찰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나요?
	관찰 표현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가. 흥미도

<표33> 사후설문지 - 흥미1

	관찰 표현에 흥미를 느끼나요?				
반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인원수(38명)	17	13	8	0	0
비율(%)	45	34	21	0	0

관찰 표현의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 사전 설문지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한명도 없었던 것에 비해 사후 설문지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17명, ‘그렇다’가 13명으로 보다 많은 학생이 관찰 표현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34> 사후설문지 - 흥미도2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놀이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치긴 했지만 움직이니까 재밌었다. -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하니까 좋았다. - 새로웠다. - 수업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재밌음 -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로워서 답답하지 않아서 재밌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할 수 있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 대상과 공감할 수 있어서 - 눈 말고 다양한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재밌다. -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각으로 관찰해서 그릴 수 있어서 자유로웠다. 	대 상 에 대한 폭넓 은 관찰이 가능해짐

관찰 표현이 흥미로운 이유에 대한 응답은 대략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놀이처럼 느껴졌다는 응답과 대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관찰이 가능해져 재밌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양한 움직임 활동을 통한 관찰 표현 교육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일종의 놀이로 느껴져 관찰 표현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단순히 보는 것 외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관찰의 폭을 넓힘으로써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관찰 표현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다.

나. 자신감

<표35> 사후설문지 - 자신감1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인원수(38 명)	11	16	8	3	0
비율(%)	29	42	21	8	0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질문에 사전 설문지에서는 자신감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관찰 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6> 사후설문지 - 자신감2

질문	답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나만의 관찰과 표현을 해서 - 내 감정이 들어가 있다. - 나만의 관점으로 관찰해서 - 굳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 자유롭게 그림 	자신만의 관점에서 관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표현할 수 있어서 - 이전보다 더 많이 표현했다. - 시각 외에 다른 감각으로 대상과 교감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다. 	폭넓은 관찰과 표현

관찰 표현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는 대부분 자신만의 관점에서 관찰 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실적 표현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관점을 토대로 한 관찰 표현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관찰 표현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로 대상을 폭넓게 관찰 표현하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움직임 교육을 통한 대상과의 교감과 폭넓은 관찰이 관찰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다.

다. 만족도

<표37> 사후설문지 - 만족도1

관찰 표현 수업의 결과물들에 만족하나요?					
반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인원수(38 명)	20	10	5	3	0
비율(%)	53	26	13	8	

‘관찰 표현 수업의 결과물들에 만족하나요?’ 라는 질문에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자신의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반면 사후 설문지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찰 표현의 결과물에 만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표38> 사후설문지 - 만족도2

질문	답변	
수업하기 전 그림과 수업에서 그린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만족스럽	- 수업 후 그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었다.	폭넓은 관찰 표현이 가능해짐

<p>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후, 대상의 더 재미있는 부분들을 관찰하고 표현했다. - 수업을 한 후 그림이 더 맘에 든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더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찰을 하게 되서 그림에 깊이감이 조금 담긴 느낌이다. - 수업 후, 그림이 더욱 깊이감이 생긴 것 같다. - 수업 후, 그림하나를 그릴 때에도 많은 걸 생각해서 그릴 수 있었기 때문 - 후, 의미 없는 잔선만 느껴졌던 그림과는 확연히 달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한 것 같아 더 좋다. - 수업을 하면서 그렸던 것들은 그것들을 보면 그 때 느꼈던 느낌들이 생각난다. - 수업 하면서 그린 것은 강약조절과 관찰 표현의 두려움을 이겨냄. 	<p>관찰 표현 과정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p>

수업 전, 후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 후 그림이 더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수업 전 그림에 비해 수업 후 그림에서 더욱 폭넓은 관찰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움직임 교육을 통해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움직임 교육을 통해 자유로움과 두려움 극복과 같은 관찰 표현의 과정 자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어 수업 후 그림이 더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그림이 더 사실적이고 알아보기 쉬워서’ 라는 응답이 나왔다.

라. 관찰 표현능력 향상

<표39> 사후설문지 - 관찰 표현 능력 향상1

수업을 통해 관찰 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인원수(38명)	13	17	6	2	0
비율(%)	34	45	16	5	0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찰 표현 수업 후 스스로 관찰 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0> 사후설문지 - 관찰표현능력 향상2

질문	답변	
어떤 관찰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훨씬 더 많이 관찰해서 대상을 진짜처럼 그림 - 처음엔 가짜 같이 그렸는데 이전 예전보다 진짜 같이 그릴 수 	사실적 관찰 표현 능력 향상

	<p>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요리보고 저리보고 느끼고 맛보고 해서 많은 걸 알아내는 능력. -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기 - 진짜 같이 그리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나무를 그릴 수 있다. - 죽어있는 정물을 보고도 감정이입해서 감정을 담을 수 있다. -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그리는 능력 - 대상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능력 - 정물과 이야기할 수 있는 	<p>감정이입 통한 주관적 관찰 표현 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외 예도 안 보이는 부분 까지도 상상해서 표현하는 능력 - 상상력 - 안 보이는 걸 상상하는 능력 	<p>상상을 통한 관찰 표현 능력 향상</p>

‘어떤 관찰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관찰 표현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응답 하였다. 사실적 관찰 표현 능력, 감정이입을 통한 주관적 관찰 표현능력, 상상을 통한 관찰 표현 능력이 그 내용이다. 먼저 오감을 포함한 몸을 이용한 관찰을 통해 학생들은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를 표현으로 연결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하여 대상에 공감하고 살아있는 대상 뿐 아니라 무생물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인상을 토대로 주관적

관점에서 관찰 표현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이용하여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관찰 표현이 가능해졌다.

마)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표41> 사후설문지 -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1

수업 후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인원수(38명)	16	14	8	0	0
비율 (%)	42	37	21	0	0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에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2> 사후설문지 -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 2

질문	답변	
관찰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p>-관찰은 보고 끝이라 생각 했는데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라 재미 있었다.</p> <p>-관찰이 뭔가를 보고 앉아서 그리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몸으로 직접 하는 활동이 많아서 놀랐다.</p>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는 관찰 표현

	<p>-늘 보기만 했는데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졌습니다.</p> <p>-다른 관점에서도 보는 것, 시각뿐 아니라 만져보고 느끼는 것</p> <p>-그냥 보는 것이 관찰이 아닌 몸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p> <p>-모든 것에 내 신체를 예민하게 반응하게 한다면 관찰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p> <p>-관찰 표현이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감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느끼고 먹고 뜯고 즐기고 보는 체험</p> <p>-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관찰한 후 표현하는 것</p>	
	<p>-그저 형적인 부분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속안, 즉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관찰하려고 노력한다.</p> <p>-수업을 받기 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물체의 표면만 보고 어떻게 해야 잘 그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수업 후에는 물체의 이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받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p>	<p>상상력을 통해 대상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는 관찰 표현</p>

	<p>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 같다.</p>	
	<p>-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p> <p>- 경험과 감정이 그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느꼈다.</p> <p>-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p> <p>-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상과 교감하려고 하게 됐다.</p> <p>- 감정을 담아서 관찰하는 것에 재미느낌</p> <p>- 사물 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감정은 어떤지 물어보고 관찰에서 나온 해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p>	<p>대상과 하나 되는 감정이입을 통한 관찰 표현</p>
	<p>- 내 관점으로 관찰하고 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p> <p>- 대상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각으로 관찰해서 그리는 것.</p>	<p>자신만의 관점을 통한 관찰 표현</p>
	<p>- 평상시에도 관찰하고 직접 느끼면서 공감하는 게 가능한 것</p>	<p>삶과 연결되는 관찰 표현</p>

	-삶과 연결되어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	
--	----------------------	--

관찰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관찰 표현이란 단순히 보는 것 외에 몸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두 번째, 관찰 표현이란 대상의 외적인 부분 외에 상상력을 통해 대상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세 번째, 관찰 표현이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감정이입의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네 번째, 관찰 표현이란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찰 표현이란 미술교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삶과 연결된 것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움직임교육을 통한 관찰 표현 교육을 통해서 이전에는 관찰 표현이 단순히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수업 후에는 관찰 표현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관찰 표현이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발견하고, 감정이입을 통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것이며, 나아가 삶으로 그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단순히 보고 그리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몸을 이용한 ‘움직임 교육’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관찰 표현의 개념 및 교육적 가치와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움직임 교육이 관찰 표현의 본질적 가치를 구

현하는데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관찰과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제 관찰 표현 교육의 현황이 어떠한지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전개와 교과서를 분석하고 앞서 검토한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프로그램 지도안 개발에 앞서 프로그램 실행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수업 전 관찰 표현의 실제와 결과물, 사전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V장에서는 구안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실제 적용한 뒤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실제 관찰 내용과 차시별 감상활동지 및 사후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관찰 표현 교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관찰 표현 교육은 오감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미묘한 것을 지각하고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대상의 본질을 지각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를 통해 관찰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둘째, 관찰 표현 교육은 감정이입을 통해 그 대상 자체가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을 통한 상상력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토대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기던 대상들에 대한 지각의 틀을 넓히고 공감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삶을 풍성하게 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관찰 표현 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 관찰 표현 교육은 모사 중심의 교육과 단순한 기능중심의 사생화 교육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도 관찰 표현 교육을 사실적 표현에 치중하여 다루고 단순히 대상을 앞에 두고 보고 그리는 피상적인 학습형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움직임 교육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움직임 교육이 관찰 표현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써 정당성을 갖는지 입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움직임 교육 자체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여 관찰 표현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과의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움직임 교육을 관찰 표현 교육에 활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여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미술 교과 관찰 표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수업전후 결과물과 사후 설문지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움직임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찰 표현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수업 전 학생들은 사실적 재현을 기준으로 서열을 나누는 관찰 표현 수업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만족감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움직임 교육을 통해 놀이로써 관찰 표현에 접근하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으로 대상을 능동적으로 관찰 표현하게 되면서 관찰 표현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그 결과물에 만족하게 되었다.

둘째, 객관적 관찰 표현 능력과 주관적 관찰 표현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다. 수업 전에는 대상의 보고 외곽을 따라 그리는 수준의 관찰 표현을 하였다. 하지만 움직임 교육을 통해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대상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표현으로 이어져 대상을 보다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업 전에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통한 주관적 표현을 막연해했다. 하지만 움직임 교육을 통해 대상에 대해 더욱 깊숙이 감정이입하고 상상력을 통해 관찰 표현을 확장하여 자신만의 주관적이고 깊이 있는 관찰 표현이 가능해졌다.

셋째,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수업 전에는 관찰 표현을 단순히 대상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수업 후에는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발견하고, 감정이입을 통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것이며, 나아가 삶으로

그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따른 연구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 표현 교육을 통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통해 학생들은 오감을 이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감정이입을 통한 상상력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즉 관찰 표현 교육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관찰 표현 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깨우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성취할 수 있다. 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임정기는 소통이 단절된 시대에 인간 본연의 자유롭고 상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성도는 미술교육이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미적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임정기, 이성도 외, 2006). 본 연구의 프로그램 사전 사후 결과물을 통해 특별한 표현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잠재되어있던 창조력, 상상력이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관찰 표현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예술의 역할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셋째, 관찰 표현 교육은 미술교과 안에서만 의미 있는 기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다. 소경희는 학교에서의 교육은 삶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소경희, 2017). 본 연구에서 구안한 관찰 표현 프로그램 통해 학생들은 주변 대상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묘사의 기술을 가르치는 미술교과 안에서의 단절적인 교육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과 소통이라는 삶과 연결된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수업이 1달에 걸친 5차시의 수업으로 비교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관찰 표현의 대상물을 학습자가 직접 선정하지 못하고 연구자가 제시하였다.

셋째, 대상의 관찰을 통한 표현은 회화표현에 제한되어 진행하였다. 넷째, 움직임 교육의 활용을 미술교과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념적인 관찰 표현의 습관은 단기간에 고치기 힘들다. 수업을 통해 변화가 있더라도 의식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관습적 관찰 표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찰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관찰 표현의 대상을 학생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관찰 표현의 대상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단계에서 수업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삶 속에 관찰 하고 싶은 대상을 발견하도록 하여 보다 주체적인 관찰 표현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회화표현 외에 입체 표현 등 재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회화표현 외에 다양한 표현을 접하게 됨으로써 더욱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입체 표현은 그 자체로 감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각의 틀을 한층 더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움직임 교육을 미술 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움직임 교육은 삶 속에서 체험을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삶과 연결된 실질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움직임 교육은 미술 교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도 실제적 삶에 근거한 교육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대한 활발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몸을 통한 감각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놀이나 오락은 스마트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감각을 통한 소통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지주의 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되며 점차 감각을 통한 소통과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너무나 많고 자극적인 볼거리들과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감각을 음

미하고 세상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채운, 2011). 소통은 단절되고 개인은 소외되고 있다.

최근 교육현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주요교과에 비해 등한시 되었던 예술교육에 주목 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예술교육을 하면 소통의 부족과 주지중심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예술교육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술교육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예술교육과 삶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찰 표현 교육의 가치를 검토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움직임 교육을 활용한 관찰 표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예술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도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고은영 (2010). Herbert Read의 표현유형을 활용한 관찰 표현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시 (2013., 본다는 것 :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보는 법, 서울: 너머학교
- 김도연 (2016). 관찰 표현력 신장을 위한 그림일기 지도방안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김수현 (2012). 홀리스틱 관점의 움직임 창작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홀리스틱 교육연구 제 16권 제 1호
- 김성호 (2015). 관찰한다는 것 - 생명과학자 김성호 선생님의 관찰 이야기. 서울: 너머학교
- 김현주, 유시현, 전민현 (2004) 움직임 교육을 위한 모티프 적용 사례: 미취학 학생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Vol8 No-
- 권용선 (2014). 발터 벤야민 공부법 -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유. 서울: 역사비평사
- 남창훈 (2010). 탐구한다는 것 : 남창훈 선생님의 과학 이야기. 서울: 너머학교
- 노영자 (2015). 고등 미술 창작 교과서. 서울: 교학사
- 두산백과 (2017.11.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4667&cid=40942&categoryId=31723>
- 민부식 (2004). 드로잉 지도를 통한 관찰 표현 능력 신장 방안 -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찬, 박종용 (2016). 동양의 눈 서양의 눈 - 우리는 미술을 읽는 눈을 잃었다. 서울: 재원
- 박남이 (2009). 의식적 관찰활동을 통한 표현력 신장 연구 : 초등학교 3

학년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진 (2104). 초등학교 미술교과에서 STEAM을 통한 관찰표현 지도방
 안 연구 : 4학년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휘락 (1998). 한국미술교육사. 서울: 예경
 백정민 (2007). 미술교과에서 단계적 관찰활동을 통한 표현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동욱 (2014). 생활 속의 철학.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186&cid=59056&categoryId=59056> (2017.11.30.)
 손재현 (2015). 창의적 움직임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민희 (2017) 체화된 인지이론에 기반한 주제표현 방안과 교육
 적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정옥 (2007). 신체활동과 통합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미술활
 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보현 (2007). 발레 동작을 적용한 움직임 창작교육이 유아의 다중지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경숙 (2006). 동작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정은 (2012).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을 통한 공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의미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지예 (2016). 창의움직임프로그램이 발달장애성인의 자기표현력 증가
 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정 (1991). 5~7세 아동의 창의적인 움직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경 (1985). 유아의 예술통합 교육에 관한 연구 : 조형놀이 중심으로.
 조형교육. 1(1)
 이우용 (2000). 움직임 교육이 초등학교 체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
 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 (2014). 청소년 대상의 움직임을 통한 창의 예술적 프로그램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찬, 최영재 (2008), 메를로 폰티의 신체지각을 통한 감성공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7(2)
- 이호철 (2017).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보리
-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 도서출판 예경
- 위규리 (2012) 무용움직임이 미술영재프로그램에 미치는 학습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세명 (2013). 관찰화 교육을 통한 미술표현발달 연구 - 초등학교에서의 인물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운 (2011). 느낀다는 것 - 채운 선생님의 예술 이야기. 서울: 너머학교
- 한국사전연구사 (1998). 미술대사전. 한국사전 연구사
- 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미술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Betty Edwards (2015),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 (강은엽 옮김), 서울: 나무숲
-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2001), (엄태동 옮김). 존듀이의 경험과 교육, 서울: 원미사 (원서출판 1938)
- Frank, Frederick (1984). 연필명상. (김태훈 옮김). 서울: 위너스북. (원서출판 2014)
- _____ (1973). Zen of Seeing - Seeing/Drawing as Meditation. New York: Vintage Books USA
- E. W. eisner (2001). Educating artistic vision.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옮김). 서울: 예경 (원서출판 1995)
- John Ruskin (2011). 존러스킨의 드로잉. (전용희 옮김). 서울: 다산북스 (원서출판 1857)
- Jiddu Krishnamurti (2013). Krishnamurti to Himself: His Last Journal. GardnerBooks. (김은지 옮김) 서울: 청어람미디어 (원서출판 1987)

- Klaus Mollenhauer (2005). 가르치기 힘든 시대의 교육. (정창호 옮김).
서울: 삼우반 (원서출판: 1983)
- L.A. Gergardt (1973), 『Moving and Knowing: The Young Child
Orients Himself in Space(Englewoos Cliffs, N.J. : Prentice-Hall)』
- Lowenfeld (2002).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미진사
- Michele Root-Bernstein, Robert Root-Bernstein (2007). 생각의 탄생. 박
종성 역 (원서출판 1999)
- Read, H (1958). Education through art. 황향숙 외 4인역(2007). 예술을
통한 교육, 서울 : 학지사
- Waler Benjamin (2017).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심철민 옮김) 서울 : 도서출판b
(원서출판 2006)
- Zimmer, Renate, (2010), handbuch der Bewegungserziehung, 김경숙 주
성순 김도연 최지현 역 (2010), 움직임 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대한
미디어

부록

[부록 1] 사전 설문지

사전 설문지

()학년 ()반 이름: (남, 여)

1. 관찰 표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답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2.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미술수업 중 관찰 표현 수업의 비중이 어땠나요?

① 0% ② 5 ~ 30% ③ 30 ~ 50% ④ 50~80% ⑤ 80~100%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 무엇을 배웠나요?

3. 관찰 표현 수업에 흥미를 느끼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있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그 동안 해왔던 관찰 표현 결과물에 만족하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록 2] 사후 설문지

사후 설문지

()학년 ()반 이름: (남, 여)

1. 관찰 표현에 흥미를 느끼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관찰 표현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관찰 표현 수업의 결과물에 만족하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수업 전 후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만족스럽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수업을 통해 관찰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어떤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5. 관찰 표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관찰 표현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부록 3] 활동 감상지

활동 감상지

- 수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 수업 전 그린 그림과 수업 후 그린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마음에 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록 4] 오감 관찰 활동지

오감	내가 관찰한 내용	다른 사람이 관찰한 내용
① 시각		
② 촉각		
③ 후각		
④ 미각		
⑤ 청각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vement Education-Based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Program in the Art Subject

Lee, Gwon Min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by having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did not realize its essential values right in the nation.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expands the perceptive framework of looking at the world and thus holds the educational value of enriching life.

Current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however, provides only superficial education of having the students repeat the process of copying and drawing objects simply instead of pursuing its essential values. That is, it provides fragmentary education separated from life instead of practical education connected to it. The investigator focused on "movement education" to use the body as a s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us to propose the utilization of movement education to review the values of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and realize them. It also aimed to demonstrate its legitimacy and effects by implementing an actual program.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conducted research as follows:

Chapter I examined the importance of observation in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meanings of observat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and the problematic of actual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nation. By examining related previous studies, the investigator demonstrated a need and objective for research on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based on movements.

Chapter II reviewed the meanings and values of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It also reviewed whether the values of current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were realized right in the nation and identified problems with it. The chapter then proposed movement

education and demonstrated its legitimacy by defining its concept based on the definitions by scholars and reviewing its educational values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it demonstrated the need and legitimacy of a movement education-based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program in the art subject by reviewing the educational values of movement education applied to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Chapter III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on students that would participate in the program before developing a guidance plan for it. The preliminary study consisted of actual observation-expression lessons in the art subject on the same topics before the program, their outcomes, and a preliminary questionnaire. Using the results, the investigator developed a full-fledged guidance plan for the movement education-based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program in the art subject.

Chapter IV analyzed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program devised earlier. It first described the reality of the program including its progress and then demonstrated its effec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utcomes and questionnaire responses before and after the lessons.

Chapter V arranged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content and outcomes, mention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proposals for follow-up study based on them. Furthermore, it discussed the directionality of education that

art education should be oriented toward in the modern societ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essential values of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to broaden the perceptive framework to look at the world and on movement education as an instrument for it. The study will be an attempt at breaking the prejudice that observation-expression education in the art subject is to teach the students the technique of copying and drawing objects simply and demonstrating that it is practical education capable of enriching life.

keywords : art, observaion-expression, movenet education, art education program

Student Number : 2016 - 21646